2011.12.28 NO.140
gonggam.korea.kr

한층 더 돋보인 한반도 위기관리 P6~9

기획특집 뮤지컬 한류, 그들이 간다 P19~33

겨울철 난방수요 급증… 모두 '에절남'이 됩시다 P12~13

창작 뮤지컬 더 양산돼야

최정원
뮤지컬 배우

최근 우리 창작 뮤지컬이 국제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뮤지컬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거리나 육교 위에 걸려 있는 뮤지컬 홍보 현수막을 볼 때면 흐뭇하고 뿌듯하다. 21년 전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때를 기억한다. 그때만 해도 뮤지컬은 소수만 향유할 뿐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문화였다.

한국 뮤지컬이 성장한 데는 배우들의 노력이 컸다. 국내 배우들은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좋은 뮤지컬을 보고 그것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나아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외국 공연팀이 내한해 협업을 진행할 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한국 배우들은 감각이 남다르고, 흡수가 빠르다"는 것이다.

뮤지컬 배우라면 없어서는 안 될 끈기와 인내심 역시 국내 배우들이 갖춘 덕목 중 하나다. 하루 8시간 연습이라는 강행군을 소화하고도 집에 갈 줄 모르는 그들의 열정에서 한국 뮤지컬의 미래를 본다. 뮤지컬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배우들의 이런 노력이 뮤지컬의 발전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고 자부한다.

최근 무대장치와 음향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공연한 뮤지컬 〈궁〉의 경우 무대를 개조해 '청사초롱길(관객석을 가로지르는 배우의 등·퇴장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는 무대장치나 음향에 정통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제작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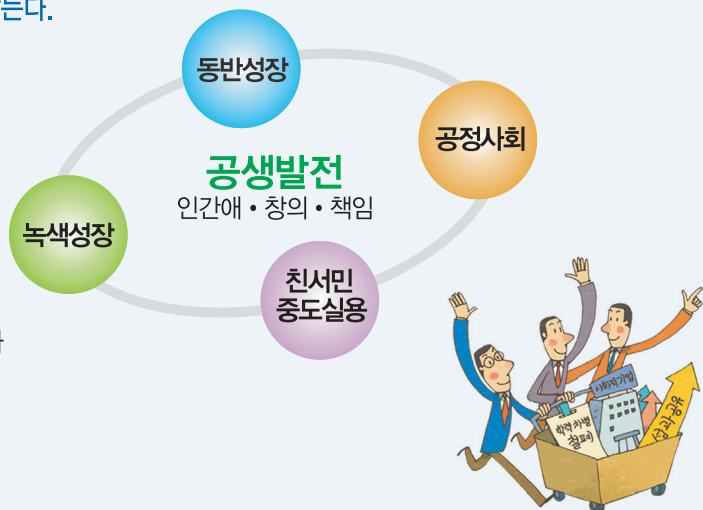
한국 뮤지컬이 성장한 데는 배우들의 노력이 컸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습을 소화하는 열정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무대장치나 음향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년에 최소 10편 이상의 창작 뮤지컬이 나오고, 그 작품들이 모두 세계로 수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내 뮤지컬계의 안정을 말할 수 있다.

창작 뮤지컬이 더 많이 양산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작 뮤지컬은 우리나라 뮤지컬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1년에 최소 10편 이상의 창작 뮤지컬이 나오고, 그 10편이 모두 세계로 수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뮤지컬계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해당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의)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식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관객은 여전히 작품의 '이름'을 보고 뮤지컬을 선택한다. 라이선스 대작들이 여전히 뮤지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질의 창작 뮤지컬을 양산한다면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로열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계 내부의 자정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다. 최근 스타들이 대거 뮤지컬에 투입되면서 동료 배우들의 출연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스타에게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배우들에게 돌아갈 공연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스타 마케팅은 장점도 있다. 그들이 가진 티켓 파워는 뮤지컬계 전반의 활황을 불러온다. 그러나 뮤지컬은 앙상블이다. 앙상블이 행복하지 않으면 공연도 힘을 잃게 된다. 뮤지컬에 몸 담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뮤지컬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제작자와 배우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Contents

NO.140 2011.12.28 통권 241호

기획특집

K팝 이은 새 히트상품 뮤지컬 한류

1995년 초연된 이래 한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를 쓰고 있는 〈명성황후〉 이후 한국 창작 뮤지컬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달콤 쌉싸름한 〈싱글즈〉 〈내 마음의 풍금〉 〈광화문 연가〉 등에서부터 비장미의 극치를 이룬 서사 뮤지컬 〈영웅〉까지 '뮤지컬 한류'를 창조하고 있다. 지친 삶을 위로할 약간의 환상이 필요하거나 추위를 녹여 줄 뜨거운 감동이 필요한 당신에게 올 겨울 '메이드 인 코리아' 창작 뮤지컬을 추천한다.

표지 이야기 | 2011년 〈위클리 공감〉의 표지를 빛낸 얼굴들입니다. 이들의 얼굴을 통해 올 한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 어제 본 듯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기쁜 일, 안타까운 일, 그리고 감동과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꿈을 〈위클리 공감〉 표지에 싣기를 기대합니다.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12.2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12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용기와 희망 주는 세대공감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139호 세대공감 말미에 적힌 문장 한 구절이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줍니다. '명문대와 스펙이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다'는 젊음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내년에는 더욱 건강한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불황을 포함한 각종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김해찬 (학생·경남 진주시 하대동)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돼야

새해 예산안 분야별 점검시리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확보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더욱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경욱 (회사원·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FTA를 기회로 수출 농업 육성하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139호 '농업시설 현대화' 기사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FTA가 우리 농촌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지원책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출 농업 육성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더불어 추운 겨울 농민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규 (학생·대전시 중구 목동)

해양경찰들을 응원합니다

138호 핫이슈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 두고 떠나는 '해양경찰대원 고(故) 이청호 경사'에 관한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나날이 횡포가 심해지는 중국 어선들로부터 우리의 영해를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 이청호 경사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행동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해양경찰대원들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때 더욱 강인한 해양경찰! 우리 영해를 지켜 주십시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박상암 (목수·전남 신안군 장산면)

"디자인이 예뻐서 책 자꾸 들여다봐요"

정은정 (27·서울 금천구 독산동)

정씨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신입사원이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해서인지 처음 〈위클리 공감〉을 접했을 때 정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위클리 공감〉의 디자인이었다. 그는 "〈위클리 공감〉은 디자인이 예뻐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잡지"라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에서 즐겨 보는 코너는.

"가장 꼼꼼히 보는 코너는 '공감여행'입니다. 사진이 지면 가득 크게 실려 시선을 잡아끌거든요. 개인적으로 글이 많은 잡지보다는 그림과 사진이 많은 잡지를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139호 '전시' 코너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그동안 '문화공감'을 읽으면서 공연이나 축제 사진을 크게 실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이번 139호에는 권기수 작가의 작품 사진이 크게 여러 점 실려서 좋았습니다. 지면도 넉넉하게 두 면이나 할애해서 보기도 훨씬 편했습니다."

2012년 〈위클리 공감〉에 생겼으면 하는 코너가 있다면.

"사극으로 배우는 역사와 같은 코너가 신설되면 어떨까요. TV 사극은 팩트와 픽션을 섞어 방송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사실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픽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 방송됐던 사극의 팩트와 픽션을 가려주고 '실제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야기해 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작 영화에 대한 정보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새해 소망은.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취업준비생 신분이었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취업준비생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서민 생활도 안정궤도에 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박소영 기자

알림

국립중앙박물관 대학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생단체 관람객에게 맞춤형 전시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 대학생 멘토로 선발된 학생은 2012년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초·중·고 학생 단체 관람객에게 전시 안내 및 관람 예절을 교육하게 된다. 멘토에게는 박물관이 주최하는 기획전을 무료로 관람할 기회가 주어지며, 경력확인서도 발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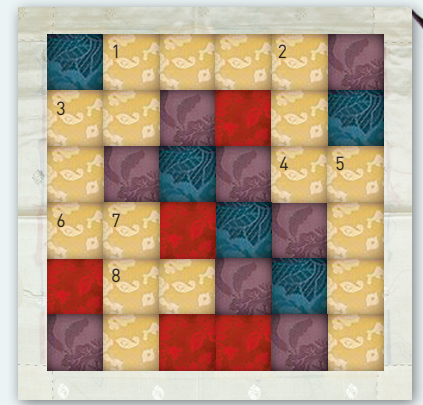
신청기간 | 2012년 1월 20일까지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pqw1234@korea.kr)로 활동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송부
모집대상 | 4년제 대학교 재학생
활동기간 | 2012년 3월 12일~8월 31일
활동시간 | 화~금요일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중 1회
활동내용 | 멘토용 전시 해설 매뉴얼 제작, 전시해설 코스 개발
주의사항 | 총 4회 대학생 멘토 전문교육 필히 이수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02-2077-9674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내 대학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홍보대사 2기를 모집한다. 홍보대사로 선발되면 4개월 동안 블로그 기자단(총 5명) 또는 대학생 홍보대사(총 25명)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며, 매월 활동비도 지급된다. 우수한 활동을 한 홍보대사에게는 추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 | 2012년 1월 8일까지
접수자격 | 국내 대학교 재(휴)학생(4학년, 졸업예정자 제외)
접수방법 | 캠퍼스라이프 모집페이지(www.campuslife.co.kr/youngkdhc)에서 접수
모집분야 | 블로그 기자단 5명, 대학생 홍보대사 25명
활동기간 | 2012년 2~6월
시상내역 | 대상 1명 장학금 3백만원 등 총 4명 시상
유의사항 | 2012년 1월 30~31일 1박 2일간 진행되는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할 경우 자동 탈락
한국지역난방공사 운영사무국 ☎02-2025-6061

바로잡습니다 139호 36쪽 사진설명 '1백3천개'는 '1천3백개'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1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조선 고종의 비(1851~1895). 민비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컬 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3. 상을 주는 뜻을 표하여 주는 증서. 이에 ㅇㅇ과 상금을 수여함.
4.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고등어 ㅇㅇ.
6. 그날그날 일어난 일이나 생각 등을 적는 일. "요즘에도 ㅇㅇ를 쓰십니까?"
8. 추운 겨울에 이것 입으면 따뜻하니 좋죠.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요.

세로
1. 기술이 뛰어나 이름난 장인. 또는 이름난 장수.
2. 앞서 맡아 보던 사람에 뒤이어 일을 맡아 보는 사람.
3. 음력으로 매달 첫째 드는 정(丁)의 날.
5. 배의 뒤쪽 마디에서 빛을 내는 날벌레. 개똥벌레라고도 하지요.
7. 비행기 안에서 승객에게 내는 음식.

〈Weekly 공감〉 138호(12월 1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백로 2 애호박 4 장바구니 7 투명 8 정화수
세로 1 백일장 2 애니 3 박영석 5 구원투수 6 상정

〈Weekly 공감〉 13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가영 · 대전시 서구 도마동
김명준 ·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심현일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순애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전진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육군 태풍부대 장병들이 지난 21일 철책선을 돌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이 대통령,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초점 맞춰

김정일 사망 계기… "남북관계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게 목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 각 부처는 김 위원장 사망이 남북관계, 국내 금융시장, 한반도 리스크 등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체제로 전환해 대내외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이 문제를 초당적(超黨的)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

여야 지도부 초당적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김진표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와 가진 회담에서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고, 4강 국가와 잘 소통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체제가 확립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나 북한이 안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소통 문제와 관련, "새해 초 중국에 첫 국빈방문을 할 예정"이라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와 중국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하겠다. 정부가 적절히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서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의원들의 해임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해임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북한이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 개인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사태를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정보 취득·분석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업무 평시체제 전환… 부처 업무보고 받아

청와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후 지속해 온 비상 모드에서 벗어나 지난 22일부터 전체적인 청와대 업무를 평시 체제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정 정상화를 알렸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19일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이후 계속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는데다 과도하게 청와대가 긴장하는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부터 정상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한해 동안 생필품값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설날까지 물가를 특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유가 및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을 챙기는 등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재개하면서도 혹시라도 발생할 북한발 불안 요소 역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 이미 지난해 말 '대응 매뉴얼'을 마련,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태 때의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는 초기부터 침착하게 체계적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여야 모두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낮 12시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매뉴얼에 따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전군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또 정부와 재외공관들도 비상근무 체제로 곧바로 전환했다. 이날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안보

불필요한 자극 자제… 최전방 3곳 성탄트리 점등 안 해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의 대응 기조를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고 권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북한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자칫 사소한 사건이 한반도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대형 악재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이번 상황을 북한 붕괴로 간주하고 위협을 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면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후계구도나 정치가 김정일 사망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권력구도가 안정되면 남북구도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 등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요지는 상중(喪中)인 북한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는 것이다.

우선 최전방 세 곳에 설치키로 했던 성탄트리 등탑(종교탑)의 점등(點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 20일 "정부 차원에서 등탑 점등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 선교연합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를 통보했다"면서 "이에 대해 두 단체로부터 정부 결정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사흘째인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내외신 취재차량들이 판문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민간

"북한 주민에 위로의 뜻… 조속한 안정 바란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평상시대로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측이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 12월 19일 근로자들을 조기 퇴근시키면서도 "내일도 정상 출근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정부가 '비정상적' 상황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개성공단 등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분들의 안전조치를 잘 취해서 지장없이 경제활동을 잘해 나가고 있다"면서 "평양 민간부문 지원단 10명과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팀 13명도 안전하게 귀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안정적 상황관리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조문에 대한 답례'라는 특수 사정을 조건으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만 허용한 것이다.

이를 제외한 민간 단체와 개인의 방북 조문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조문 또는 조의를 주장하는 진보 측과 이에 반대하는 보수 측, 조문·조의 불허에 따른 북한 자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외교

임성남 평화교섭본부장 베이징행… 6자회담 조율

정부는 중국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22일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고 23일 돌아온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담화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대책을 정리, 담화문 형태로 발표했다. 담화문은 정부차원의 위로, 조속한 안정, 남북의 번영과 평화유지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 경찰특공대원들이 탐지견을 이용해 출입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그렸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독일의 통일과 같은 외교적 급변상황을 되짚어보면, 큰 그림을 확실히 하면 상황이 잘 전개됐다"며 "지금은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예단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재개 흐름은 애도기간이 끝난 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이번 주 서울에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공조방안과 북핵 6자회담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 양국은 새해 1월 이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국방

전군 비상경계… 재외공관도 비상대기체제

그러면서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전군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위기조치반 및 작전부서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경계태세 강화방안을 논의한 뒤 비상경계태세 강화조치를 하달했다.

합참은 현재 전방지역의 북한군이나 북·중 국경지대에서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휴가와 여행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도 전체 재외공관에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국론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근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상황 등을 설명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환담에서 "올해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며 "(우리 사회가 국론분열 없이)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 세계가 (김 위원장 사망을) 동시에 알았다"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 4개국과 연락했고, 정상들을 통해 들어보니 다들 똑같은 시점에 알았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도 잘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참석자들은 북한체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적극 노력하면 오히려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G

글·오동룡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부품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미국 포드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

중소기업, 높은 품질·착한 가격 '날개'

관세철폐 효과로 자동차부품·섬유·전기·기계산업 수출 늘어날 듯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수혜가 전망되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한·미FTA 발효로 우리 중소기업은 섬유, 기계, 전기 산업 등의 부문에서 폭넓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야흐로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한·미FTA가 비준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중소제조업체 중 대기업 수탁기업은 80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대기업과 함께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이로 인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선점을 통해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 또는 철폐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의 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퍼센트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인 2.5퍼센트보다 높다.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60퍼센트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16.8퍼센트로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적용되면 추후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퍼센트의 중소기업이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미국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지 기업의 57퍼센트가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로 한국 기업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한·미FTA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품목은 역시 자동차부품이다. 볼트·너트, 브레이크 패드, 에어백 등 부품에 따라 0~12.5퍼센트 정도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올해 2백3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3백억 달러 선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이 이미 검증된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면 미국 수출에 물꼬가 트일 거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부품을 납품하면 지속적으로 수리용 부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에는 큰 이점이다. 이에 코트라는 브레이크 패드, 냉간 단조 부품, 볼트·너트 등 자동차부품 3종을 '한·미FTA 중소기업 10대 수출 유망상품'에 포함한 바 있다.

반면 완성차의 관세 철폐 시기는 4년 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1천5백만 대 규모인 미국 자동차 시장을 국내 업계가 선점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섬유산업도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사, 양말 등 품목에 따라 4.3~17.2퍼센트에 달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커지고,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돼 대미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에 따른 국산 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미국 통관절차 신속화, 한·미 양국 간 기술 협력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볼베어링과 펌프 등 기계 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볼베어링은 9퍼센트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관세가 10년간 균등 철폐되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한국산 볼베어링은 중국산보다 50퍼센트 정도 비싸고 일본산에 비해서는 약 20퍼센트 정도 저렴한 편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전기전자 및 IT 업종도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대부분 멕시코 등에서 현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미국시장 물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대부분 이미 무관세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풍력발전세트, 고데기, 전기제어판 등 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FTA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상품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관세율	양허 유형	2010년 대미수출액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패드	2.5	즉시철폐	270
	냉간단조부품 (엔진블록, 피스톤 등)	0~2.5	즉시철폐	779
	볼트·너트	5.7~12.5	즉시철폐	122
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사	4.3	즉시철폐	137
	카매트	6.7	즉시철폐	19
기계	볼베어링	9.0	10년균등	34
	펌프	2.5	즉시철폐	95
전기전자	터치스크린 모니터	2.7	즉시철폐	34
석유화학	에폭시수지	6.1	즉시철폐	34
정부조달	리튬일차전지	2.7	즉시철폐	33

자료 KOTRA

이 밖에 석유화학, 정부조달 산업 등이 한국 중소기업들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미국 시장 전략품목의 현지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지향형 강소기업(Small Giants)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지향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미FTA가 기나긴 진통 끝에 어렵게 통과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FTA 발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과장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61퍼센트로 확장되어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경제영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2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는 중소기업에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활용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한·미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피해 예상 업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손수원 기자

난방수요 급증… '에절남'이 됩시다

오전 11시·오후 6시 전후 1시간씩만 전기사용을 줄입시다

추위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난방용 사용이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올 겨울 전력 사정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전력 사용량이 해마다 불어나는데다 발전소 시설 이상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전력 사용 절감 대책에 나섰다.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반면 잘 지킨 사용자에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명동에 한 무리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있었다. 홍 장관은 "절전은 타이밍, 아껴요 1118"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다. 같은 날 발대식을 가진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과 함께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었다.

시민감시단은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지역대표와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지난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 2월 말까지 에너지 절약 계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껴요 1118'은 동절기 전력 피크타임인 11시와 18시를 전후해 각각 1시간씩 절전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겨울철 전력 사용 절감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겨울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연중 최대 전력 피크치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난방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전력 사용 증가율은 연평균 6퍼센트에 그친 반면 난방전력 증가율은 14퍼센트에 달했다.

대형 산업체 10퍼센트 감축 시 인센티브 제공

전력은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건물, 가정 등 전력 사용 주체별로 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전 이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고 모범적인 곳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절기 전력피크에 대비해 다양한 절전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형 산업체와 빌딩은 전년 대비 10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 중형 빌딩들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 업체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2일 서울 명동에서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산업체에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10퍼센트까지 절전 규제를 한다. 먼저 산업 부문 전력피크의 52퍼센트를 차지하는 1천킬로와트 이상 7천여 개 업체들은 피크시간(10~12시, 17~19시)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총사용량 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피크시간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조업시간 조정, 자체 보유 발전기 가동, 조명·난방·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생산 차질 없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천킬로와트 이하인 업체는 피크타임 10퍼센트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 실시한다.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동한 산업체엔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퍼센트 경감해 준다. 하지만 감축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률이 낮은 곳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축 계획은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석유화학이나 정유산업 등 24시간 조업을 하는 경우엔 일률적으로 10퍼센트 감축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평시 5퍼센트 감축이나 전력 수급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1월 2~3주 사이에 20퍼센트 감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네온사인 오후 5~7시 사이 사용금지

일반 건물은 산업 부문에 이어 2번째로 전력 사용이 많다. 전력 사용 규모에 따라 다른 절감 이행 기준을 적용한다. 1천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6천7백여 개의 초대형 빌딩은 피크시간 동안 전년 대비 10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백~1천킬로와트를 사용하는 4만7천 개 중대형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4백78개 건물에 불과했던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형 건물과 소매상가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17~19시 사이엔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이용할 수 있다. 네온사인 간판은 일반간판보다 8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가정 부문에서는 전자제품의 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이 더욱 많이 보급되도록 유도한다. 현재 49퍼센트인 세탁기의 1등급 비중을 10퍼센트로 축소할 예정이다.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알려진 전기스토브와 전기온풍기 등은 에너지 비용 표시제를 실시한다. 한 달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등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도 올해 안에 에너지 비용 표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은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하다. 우선 공공기관 1만9천개소는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퍼센트 감축을 의무화했다. 실내온도는 18도 이하이며 피크시간에는 난방을 중지한다. 내복 입기도 생활화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전기요금 4.5퍼센트 인상

주택·농업·전통시장용은 동결

지난 12월 5일부터 전기요금이 4.5퍼센트 인상됐다. 올 겨울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통해 사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05~2010년 사이 증가율이 30.6퍼센트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1.7퍼센트, 프랑스는 5.6퍼센트 증가에 그쳤고 일본과 영국은 오히려 각각 1.9퍼센트, 5.1퍼센트 전력 사용량이 감소했다.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 석유류 소비 대신 전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주택용과 농업용, 전통시장용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을 위주로 요금을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1백44만킬로와트의 전력피크가 감축되고 1조천억원의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과 농업용 요금을 동결했으므로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생산자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향후에도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요금 조정 현황

구분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용	가로등	평균
			저압	고압	계	저압	고압	계				
인상률(%)		–	3.9	5.0	4.5	3.9	6.6	6.5	4.5	–	6.5	4.5
원가 회수율 (%)	전	86.4	86.9	94.6	90.8	78.4	89.3	88.7	83.9	32.8	78.3	87.0
	후	86.4	90.3	99.3	94.9	81.4	95.2	94.4	87.7	32.8	83.4	90.9

여성 일자리 13만개 맞춤형 연계 지원

취업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도 5백명으로 2배 늘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2012년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부모·조손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고령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는 데 기여가 많았다. 2012년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지원과 가족가치 확산,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도 역점 과제로 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2012년에 13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연령과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98개에서 1백11개로 확대한다. 광역새일지원센터에 전담 취업설계사를 배치해 20~30대 여성들의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2개인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45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미 취업한 여성들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재직여성들이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2백50명이었던 리더십 교육인원을 5백명으로 늘린다.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만 실시하던 관리자 네트워크를 호남권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과후 지원활동 토요일까지 확대

여성친화 도시도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여성친화 도시는 양성이 지역정책과 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여성행정을 운영하는 곳을 이른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간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과 후 활동지원은 주 5일제 확산에 따라 토요일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레스큐 스쿨'은 1백50명에서 6백명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유캠프'는 1백14가족에서 4백80가족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상담과 보호, 의료, 자립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1백66개에서 1백76개로,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 정책인 청소년동반자는 8백80명에서 9백8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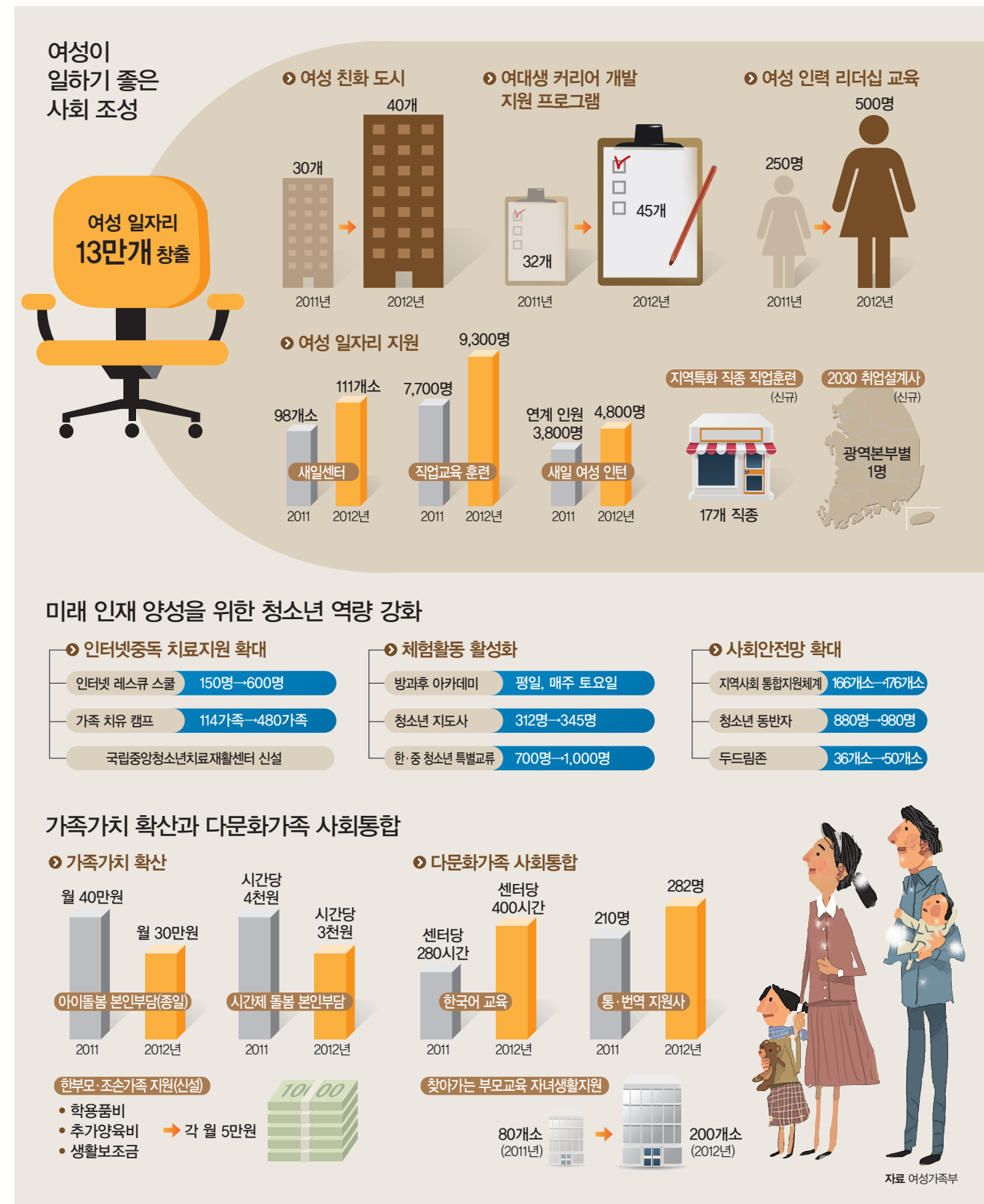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과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서민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 준다. 소득 하위 40퍼센트 이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7만7천명에게 월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조손가족과 미혼모·부자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어 교육시간은 2백80시간에서 4백시간으로 늘려 조기 정착을 돕는다. 통·번역지원사는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증원해 행정, 의료, 교육기관 이용시 의사소통과 서류작성을 도와줄 계획이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6개월로 제한돼 있던 보호시설 이용기간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으로 바꿔 기간을 연장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해당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제도화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희망복지사업단’ 통해 통합 서비스

내년 4월부터 전국 시·군·구서… 연금보험 5년 선납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2012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 도입,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강화 등을 내년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새해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아라면 누구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현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9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경감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재정지원 노인일자리가 올해보다 2만 개 늘어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해 시범운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확대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정책의 방향은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가 목표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복e음’ 확대… 복지서비스 누락·중복 방지

알코올 중독인 아빠, 일을 하고 싶은 엄마,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8세 아들과 보육이 시작되는 3세 딸을 둔 기초수급가구에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할까. 그동안 이런 가정은 문제가 복합적이라 여러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위 가정의 경우 알코올 중독 아빠에게는 치료와 직업훈련이, 자녀들에게는 보육료 지원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체계적 돌봄서비스가, 엄마에게는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행복e음’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과 탈수급 시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친다.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의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가는 건강정책도 추진한다. 담뱃갑에 이와 관련한 경고그림 삽입을 추진하고 ‘덜 짜게 먹기 운동’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한다. 노숙인 주취자 특별재활시설인 Wet House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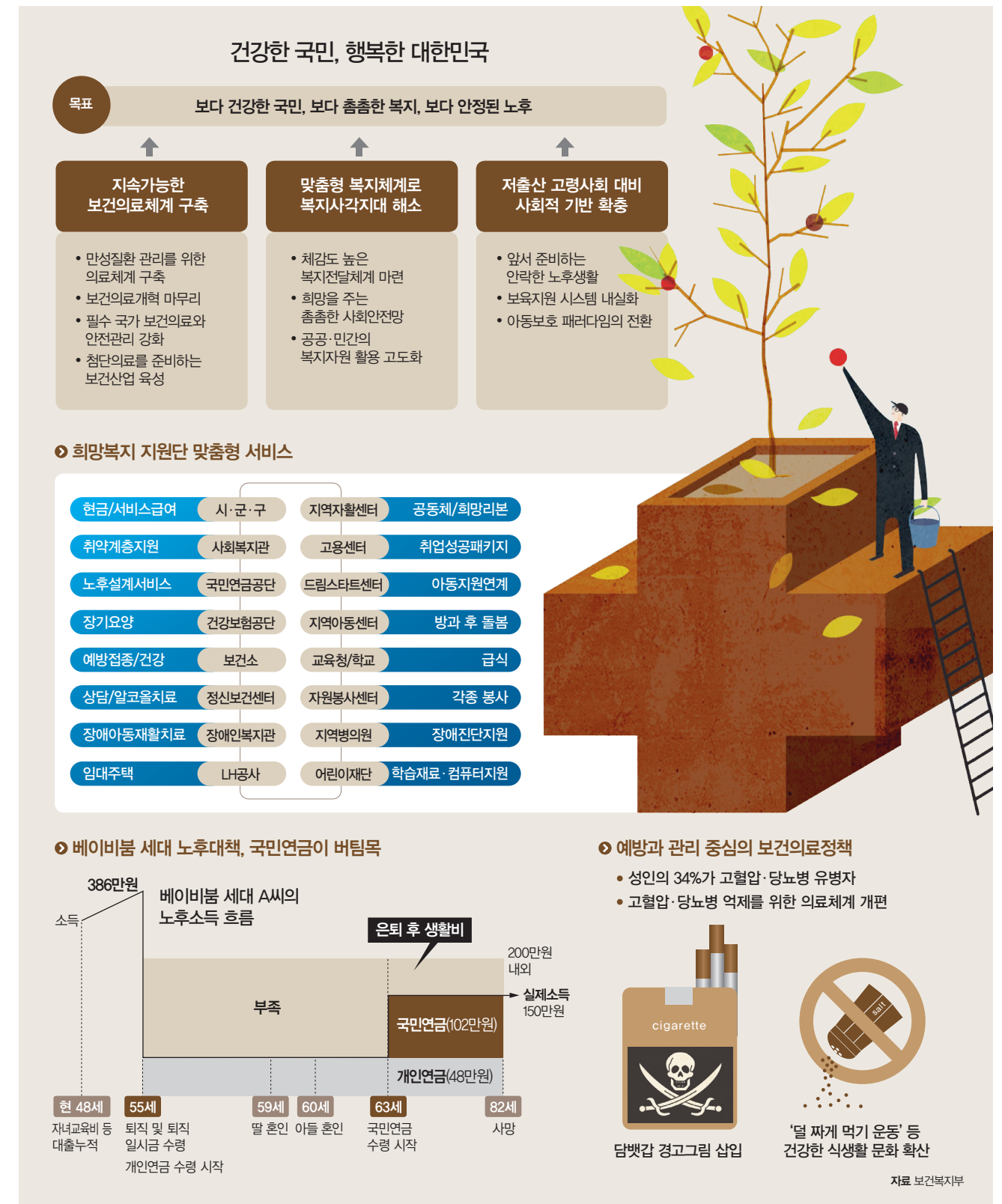
국가건강검진체계 질환 중심 통합 검토

현재 일반·생애주기별 암 등 3개로 분산돼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는 연령별·성별 목표 질환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고령화사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세대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030세대에게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베이비붐 세대인 4050세대를 위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제도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올해 3백87만명보다 15만여 명 많은 4백2만명으로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20만 개에서 22만 개로 확대, 제공한다. G

글·박근희 기자

자료 보건복지부

기획특집

한국인과 찰떡궁합 뮤지컬도 한류물결

1995년 초연된 이래 한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를 쓰고 있는 〈명성황후〉 이후 한국 창작 뮤지컬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달콤 쌉싸름한 〈싱글즈〉 〈내 마음의 풍금〉 〈광화문 연가〉 등에서부터 비장미의 극치를 이룬 서사 뮤지컬 〈영웅〉까지 '뮤지컬 한류'를 창조하고 있다. 지친 삶을 위로할 약간의 환상이 필요하거나 추위를 녹여 줄 뜨거운 감동이 필요한 당신에게 올 겨울 '메이드 인 코리아' 창작 뮤지컬을 추천한다.

일러스트 · 유현호

뮤지컬 〈영웅〉은 보편적인 스토리에 한국적인 색채를 더한 대표적인 국내 창작뮤지컬이다.

보편적 스토리에 한국적 연출로 '시너지'

최첨단 무대장치·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까지 더해 '보고 듣는' 감동 두 배로

창작뮤지컬 〈영웅〉은 지난 8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명성황후〉의 브로드웨이 공연에 이어 두번째다. 인기 가수 바다와 박규리 등 스타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미녀는 괴로워〉도 지난달 일본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뮤지컬이 K팝이나 드라마처럼 세계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오후 8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은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바람을 뚫고 뮤지컬 〈영웅〉을 보러 온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영웅〉은 〈명성황후〉에 이은 윤호진 감독의 두번째 창작뮤지컬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 1백주년인 2009년에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막이 오르고, 무대에 등장한 12명의 장정이 단지(斷指)하는 첫 장면이 끝나자 삼삼오오 모여 앉은 1천여 명의 관객은 박수와 함께 함성을 쏟아냈다. 1909년 2월 러시아 연추에서 있었던 정천동맹(단지동맹)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무대 위로 빽빽이 자리한 하얀 자작나무는 이들의 굳은 결의를 형상화하는 듯 곧게 뻗어 있었다.

1막 4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scene)에서는 모든 관객이 숨을 죽인 채 무대를 응시했다. 쫓고 쫓기는 의병군과 일본군 사이의 숨 막히는 추격전을 묘사한 장면이었다. 무대로 의병군이 등장할 때는 새파란 조명이, 일본군이 등장할 때는 빨간 조명이 쏟아졌다. 그들이 무대 정면을 바라보며 함께 서 있는 장면에서 조명은 1초 단위로 옷을 갈아입었다. 조명이 바뀔 때마다 의병군과 일본군의 얼굴이 번갈아 눈에 들어왔다. 참신하고 색다른 시도였다.

반기문 총장 "영웅에 토니상을 주고 싶다"

뮤지컬 〈영웅〉은 창작뮤지컬답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대의 고혹적인 색감과 조명은 물론, 한복의 아름다움까지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공존과 평화를 뜻하는 안중근 의사의 의상은 흰색과 푸른색 계열, 이와 대비되는 이토 히로부미의 의상은 검은색과 붉은색 계열로 시각화돼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경복궁 옥호루에서 '설희'가 노래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병풍 뒤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장면이 재현될 때 무대를 비추는 노란빛의 조명은 구슬프면서도 애틋한 느낌을 자아낸다. 관객들은 몽환적이면서도 때론 긴장감 넘치는 무대 연출에 흠뻑 취하고 만다.

〈영웅〉의 음악은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쉽고 강렬한 멜로디로 구성돼 있다. 〈영웅〉의 음악을 맡은 오상준 작곡가는 드라마 및 CF에서 경력을 쌓아 온 실력파로 〈영웅〉 초판 OST 품절의 일등 공신이다. 그는 장엄하면서도 대중적인 멜로디로 격정적인 시대적 감성을 음악으로 풀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웅〉의 무대연출이 한국적이라면 스토리는 세계적이다. '영웅 서사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영웅〉이 미국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스토리의 보편성에 기인한다. 물론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무대장치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웅〉에 토니상을 주고 싶다"는 말로 〈영웅〉 관람 소감을 대신했다.

창작뮤지컬 〈미녀는 괴로워〉는 일본 만화 원작 〈미녀는 괴로워〉를 바탕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로, 가수 바다, 카라의 박규리 등 스타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10~11월 일본 오사카 쇼치쿠자 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고, 내년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공연도 예정돼 있다.

스타 캐스팅·화려한 무대장치도 한몫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일본에서 선보인 창작뮤지컬 〈궁〉은 일본 교토의 미나미자 극장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궁〉은 동명원작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것으로, 지난해부터 뮤지컬로 각색돼 무대에 올랐다.

〈궁〉의 제작사인 그룹 에이트는 한국 창작뮤지컬의 성공요인으로 '콘텐츠 파워'와 '캐릭터 캐스팅' 등을 꼽았다. 재미있는 스토리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것이 흥행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궁〉은 독특한 무대 장치로도 이목을 끈다. 일본 공연에서 선보였던 청사초롱길(관객석을 가로지르는 배우의 등·퇴장로)을 서울 공연에도 도입한 것.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 장치는 극중 청사초롱을 든 궁녀들이 이 길을 통해 무대로 입장하는 장면에서 착안, 청사초롱길이라 이름 붙였다.

〈궁〉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일본 공연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일부 창작뮤지컬이 추가적인 무대장치를 활용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궁〉의 제작진은 한 발 더 나아가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관람석을 전면 개조했다.

라이선스 대작도 국내 호응 높아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캣츠〉와 〈오페라의 유령〉 등은 대표적인 라이선스 뮤지컬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 극단의 내한 공연을 보기보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많다.

대학생인 박수영(23)씨는 "굳이 외국 배우들의 내한공연을 봐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 무대연출도 뛰어나 국내 공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박씨는 "〈지킬 앤 하이드〉 〈아이다〉 등을 관람한 주변 친구들도 국내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조로〉의 경우 판권을 가진 '조로 런던 리미티드'로부터 각색 허가를 받아, 한국 버전의 〈조로〉를 만나볼 수 있는 데다 조승우, 박건형 등 스타들이 대거 캐스팅되며 티켓 파워를 더했다.

새해 1월 말까지 공연하는 뮤지컬계 베스트셀러 〈페임〉도 화려해진 무대와 최강의 캐스팅으로 관객을 찾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현대적 감각의 편곡을 통해 극 전개를 빠르게 재편, 한국적인 연출을 선보인다는 것이 제작사 측의 설명이다.

글·박소영 기자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형식에 관객 환호

판소리 등 유사한 전통문화에 익숙… 탄탄한 스토리·배우 열연도 한몫

한국 뮤지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열연, 변함없이 찾아드는 관객들. 한마디로 나날이 뮤지컬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말이 '공연가의 대목'이라지만, 수십개의 뮤지컬 작품이 일시에 경쟁을 벌이며 관객들을 유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 일간지의 공연담당 기자가 전화를 걸어 왔다. 연말 공연가 추천작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몇 작품이나 올려지는지 손꼽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번 달 막을 올리는 뮤지컬 작품 수가 자그마치 40여 작품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어린이나 교육용 뮤지컬은 제외한 수치다. 아무리 평론가라지만 매일 밤 공연장을 찾아도 소화불량에 걸릴 수밖에 없다. 2011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뮤지컬 르네상스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다.

물론 모두가 관객 동원에 성공적이거나 소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의 대부분이 그렇듯 열에 한둘이 돈을 벌 뿐,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또 아무리 연말이 공연가의 대목이라도 이렇듯 많은 작품이 일시에 경쟁을 벌이며 관객들을 유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게 한다.

왜 이토록 인기일까. 사람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뮤지컬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성향과 관련 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노래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를 즐겨 왔고, 이러한 제 요소를 적절히 뒤섞어 놓은 현대적 종합예술인 뮤지컬은 우리나라 대중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적절한 문화장르라는 의미다.

〈오페라의 유령〉

이달에 막올린 뮤지컬만 무려 40여 작품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뮤지컬은 1966년 막을 올렸던 〈살짜기 옵서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에겐 판소리나 탈춤, 농악, 굿판 등을 통해 뮤지컬과 매우 유사한 문화적 장르를 폭넓게 생산하고 소비해 온 역사와 전통이 존재해 왔다.

사실 뮤지컬(Musical)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뮤지컬이란 '음악을 활용해 만든 모든 그 무엇'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뮤지컬 인기의 전부는 아니다. 공연 혹은 무대 하면 왠지 고리타분한 느낌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현대 뮤지컬에는 볼거리가 많다.

매번 실시간인 라이브로 이야기를 반복, 재연해야 하는 무대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수효과나 무대 장치, 그리고 안무와 동선 등의 창의적인 배열과 배치 등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들로 승화되어 왔다.

이 같은 창의적 시도와 노력들은 많은 뮤지컬 작품들에서 비주얼 효과의 적극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예를 들자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무대 위에 놓여 있던 샹들리에가 하늘로 올라 관객들 머리 위 극장 꼭대기까지 오르고, 〈미스 사이공〉에서는 실제를 방불케 하는 헬리콥터가 아비규환의 베트남 탈출의 날을 재연한다.

쓰레기더미에서 환생한 한 마리의 고양이를 뽑는 뮤지컬 〈캣츠〉의 마지막 장면은 버려진 타이어가 하늘로 날아오르며 완성되고, 내년에 우리 무대에 오를 예정인 빅토르 위고 원작 소설의 뮤지컬 〈레 미제라블〉은 무대 위 원형 테이블을 좌우로 끊임없이 돌려 가며 입체적인 공간을 창출해 낸다.

관객의 상상력 자극하는 창의적 노력 돋보여

무대 위 특수효과의 적극적인 개발과 적용은 현대 뮤지컬 산업의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적 부가가치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화를 원작으로 한 무비컬이나 흘러간 옛 대중음악으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 등이 대표적이다.

〈메리 포핀스〉〈빌리 엘리어트〉〈반지의 제왕〉〈사랑과 영혼〉〈스파이더맨〉 등이 전자의 예라면, 〈맘마미아!〉〈위 윌 록 유〉〈저지 보이스〉〈프리실라〉 등은 후자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익숙한 콘텐츠의 재연이나 반복의 수준을 넘어 다시 이를 해체시키고 재구성함으로써 '잘 알고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재미를 창출해 내는 요즘 인기 뮤지컬의 흥행 공식인 셈이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모색되기는 마찬가지다. 뮤지컬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공연시장의 팽창은 세계 어디서나 목격되는 '글로벌'한 현상이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로컬' 콘텐츠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글로컬(glocal)' 문화 생산물 시대의 도래인 셈이다.

한류의 선봉장이었던 드라마 〈대장금〉이 제2의 한류를 겨냥한 무대화 작업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겨울연가〉〈미녀는 괴로워〉 등은 일본 공연을 거쳐 국내에 막을 올리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기도 한다.

세계무대서 통할 한국 뮤지컬 출현도 꿈은 아닐듯

달리는 기차를 영상과 세트로 교묘히 엮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영웅〉은 국내에서의 인기를 등에 업고 뉴욕에서 막을 올리고, 고 이영훈 작곡가의 노래들로 꾸민 〈광화문 연가〉는 창작 초연에도 대규모 흥행을 기록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얻어 내기도 한다.

〈스트릿 라이프〉〈늑대의 유혹〉〈젊음의 행진〉〈파리의 연인〉〈막돼 먹은 영애씨〉 등 일일이 손꼽기만도 힘들 만큼 많은 작품이 각축을 벌이며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아직 세계적인 흥행작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지만, 지금의 성장세를 잘 이어 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완성도와 예술성을 갖춘 한국 뮤지컬의 출연은 멀지 않은 꿈이 될 것 같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잠깐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이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전용 공연장도 속속 문을 열고 있고,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유기적인 결합도 시도되고 있어 앞으로 등장할 '물건'들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지난 반세기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문화의 기적, 뮤지컬의 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언젠가 우리 뮤지컬을 세계 시장의 관객들이 소비하며 즐기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2011년 마지막을 돌아보며 떠올리는, '절로 미소 짓게 되는' 뮤지컬 애호가의 바람이다.

글 · 원종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뮤지컬 평론가)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창작뮤지컬도 얼마든지 흥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작품이다.

노래로 연기로… '개성 카리스마' 작렬

조승우·윤형렬·정성화·옥주현 등 '자기만의 색깔' 국내 뮤지컬 흥행 이끌어

우리나라 뮤지컬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최정원, 남경주 등 초창기 뮤지컬 스타들의 공도 컸지만 차세대 주역들의 역할도 한 몫을 했다. 이들은 가창력뿐만 아니라 연기도 뛰어난 멀티본능으로 팬들을 울렸다 웃겼다 한다. 요즘 잘나가고 있는 뮤지컬 스타들을 살펴봤다.

신이 내린 목소리 정선아

안정된 가창력… 닮고 싶은 여배우 1위

정선아는 뮤지컬계를 통틀어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여배우로 평가받는다. 또 여배우들이 닮고 싶어하는 여배우 1위로도 자주 꼽힌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는 정선아를 두고 동료 배우 김준현은 "노래를 가지고 놀 줄 아는 배우"라고 말한다. 사실 정선아는 뮤지컬계에서 중견배우나 다름없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캐스팅돼 뮤지컬 〈렌트〉로 첫 공연을 한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맘마미아〉, 〈드림걸즈〉, 〈모차르트〉 등 굵직굵직한 작품에 출연해 톡톡 튀는 연기와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현재 그는 〈에비타〉에서 '에비타'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올 초 정선아는 〈아이다〉의 '암네리스'를 원캐스팅으로 소화해 내 극찬을 받았다. 여느 배우들이라면 자칫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달랐다. "원캐스팅으로 연기를 하면,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되고 역할에 책임감도 생긴다"는 것이다.

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선아는 "2006년 초연 때는 '돈 크라이포미 아르젠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등 몇몇 곡이 대표곡으로 꼽혔다면, 이번에는 관객들이 모든 곡을 빼놓지 않고 갖고 가길 원한다"며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뮤지컬 외에도 드라마나 영화 OST, 그리고 CCM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업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객들은 벌써부터 정선아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차지연

정선아

폭발적인 가창력 옥주현

아이돌 출신 우려 씻고 성공적인 변신

아이돌 가수 출신이 뮤지컬을 한다? 아이돌 그룹 '핑클' 출신의 가수 옥주현이 뮤지컬 무대에 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연기도, 노래도 모두 부족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옥주현은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노래는 물론, 연기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옥주현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파워풀한 가창력에 있다. 타고난 성량과 힘 있는 발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매력이다. 옥주현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출연 당시 경연 합류와 동시에 '아이돌 출신 가수'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벗고 1위를 차지했다. 그의 가창력이 경연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는 사실은 그가 뮤지컬 배우로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었다.

옥주현은 2005년 〈아이다〉에서 '아이다' 역을 맡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후 〈캣츠〉, 〈시카고〉 등에서 열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올 초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진행한 '2010 골든티켓 어워즈'에서 그는 뮤지컬 분야 티켓파워 1위 여배우로 뽑히기도 했다.

주요 수상으로는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2005),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2008)·여우인기상(2009), 제1회 서울문화예술대상 뮤지컬배우 대상(2010) 등이 있다. 옥주현은 현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아가씨와 건달들〉에도 출연 중이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차지연

장르·영역·배역 가리지 않는 전천후

옥주현이 가수 출신 뮤지컬 배우라면, 차지연은 뮤지컬 배우 출신 가수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듯하다. 차지연은 몇 달 전 MBC 〈나는 가수다〉에 임재범과 함께 출연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차지연의 과거(?)가 새삼 주목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후 차지연은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출시한 데 이어, 제5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는 행운을 안았다.

차지연은 그간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씨왓아이워너씨〉, 〈드림걸즈〉, 〈몬테크리스토〉 등에서 강렬한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데뷔작은 일본 극단 '사계'가 제작한 〈라이온 킹〉이었다. 그는 본래 가수를 꿈꿨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 2006년 봄,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뮤지컬 오디션에 도전한 것이 인생 역전의 발단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에 합격한 그는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 6개월간 연습에 매진하게 되고, 무대에 서게 된다.

옥주현

차지연은 "한 작품 한 작품을 만날 때마다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연습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이런 열정이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셈이다. 차지연은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욕심도 숨기지 않는다.

"가수 임재범의 전국 투어에 게스트로 참여한다. 음반 활동도 활발히 하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출연할 수 있을 것 같다. 장르·영역·배역 가리지 않는다. 뭐든지 새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했으면 더 없이 좋겠다.(최근 언론 인터뷰 중)"

두 얼굴을 가진 배우 정성화
〈영웅〉 흥행의 중심… 탄탄한 연기력 자랑

브라운관에서는 주로 감칠맛 나는 조연으로 등장했던 그가 무대 위에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투사로 변신한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창작뮤지컬 〈영웅〉의 주인공, 배우 정성화 이야기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한국형 뮤지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영웅〉을 두고 "토니상을 줄 수 있다면 〈영웅〉에 주고 싶다"고 이야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웅〉이 흥행에 성공한 데는 정성화의 공이 크다. 정성화는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안중근의 영웅적인 면모에 인간 안중근의 모습을 더해 '정성화만의 안중근'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2010년 국내 양대 뮤지컬 시상식인 더 뮤지컬 어워즈와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흥행 스타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화는 〈영웅〉 외에도 뮤지컬 〈스팸어랏〉, 〈라디오 스타〉, 〈맨 오브 라만차〉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다져왔다. 또 드라마 〈개인의 취향〉, 영화 〈위험한 상견례〉, 〈댄싱퀸〉 등에서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감초 연기로 관객들에게 잔잔한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정성화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지만 공연을 앞두고는 새벽에 나와 밤늦게까지 연습을 할 정도로 뮤지컬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기하는 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티켓 파워 1위 조승우
영화배우 출신다운 안정된 연기·노래가 장점

조승우는 뛰어난 연기력에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당대 최고 뮤지컬 스타로 군림하고 있다. 뮤지컬계 티켓 파워 1순위로, 그가 등장하는 작품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한다. 그가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지난해 말부터 올 8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연에서 약 35만명의 관객을 동원, 1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티켓 오픈 1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관객들은 그의 신들린 듯한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에 반해 그에게 '조지킬'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었다. 조승우가 부른 〈지킬 앤 하이드〉의 OST '지금 이 순간'은 뮤지컬 오디션 애창곡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조승우

정성화

뮤지컬 배우로서 조승우의 최대 강점은 그가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는 노래와 연기, 두 축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으며 극을 힘 있게 이끌어간다.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조로〉에서 조승우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연기로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와이어 액션과 마술쇼, 능청맞은 연기는 극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린다. 개막 전 티켓 오픈에서 〈조로〉는 조승우의 티켓 파워에 힘입어 예매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뮤지컬계의 박효신' 윤형렬
〈노트르담 드 파리〉로 신인상 휩쓸며 스타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랄다'를 부른 주인공. 매력적인 음색으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던 윤형렬이다. 윤형렬은 가수 박효신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저음에 파워까지 겸비한 목소리로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노트르담 드 파리〉가 국내에 초연할 당시, 전문가들은 "콰지모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윤형렬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형렬은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꼽추 콰지모도 역을 맡아 상처받은 콰지모도의 아픔과 상처를 잘 표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형렬은 사실 2006년 〈기억의 나무〉란 앨범을 내고 가수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나 앨범은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고, 그는 얼떨결에 뮤지컬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다. 그가 참가했던 오디션이 바로 주인공 콰지모도를 뽑는 〈노트르담 드 파리〉 오디션이었다.

그는 이 한 편으로 2008년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인기스타상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서 남자신인상과 2009년 올해의 스타상을 거머쥐었다.

당시 평론가들은 그를 '뮤지컬계가 발굴한 최고의 신인'이라고 극찬했다. 윤형렬은 이어 〈햄릿〉, 〈아킬라〉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일본극단 '사계' 출신 김준현
〈지킬 앤 하이드〉서 신들린 연기로 갈채

김준현은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김준현의 '하이드'를 본 관객들은 그의 신들린 듯한 연기를 잊지 못한다. 그의 이름을 처음 국내에 알린 작품은 〈잭더리퍼〉로, 그는 유준상, 민영기와 함께 주인공 앤더슨 역을 연기한 바 있다.

185센티미터의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풍부한 성량, 발군의 연기력 등 그는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배우다. 그가 국내 무대에 데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조승우 등과 함께 〈지킬 앤 하이드〉의 주인공 지킬 역을 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이중성을 얼마나 잘 표현해 내느냐가 뮤지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김준현의 지킬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의 지킬을 보고 온 관객들은 "(김준현이) 하이드로 변신할 때 깜짝 놀랐다", "소름끼치는 명연기였다"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김준현은 과거 일본 대표 극단 사계의 단원으로 5년 넘게 활약한 일본 뮤지컬계의 스타였다. 그는 〈아이다〉, 〈캣츠〉,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유명 라이선스 공연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

배우로서 그의 목표는 하나다. "진실한 배우, 관객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김준현은 현재 뮤지컬 〈조로〉를 공연 중이며, 최근 〈모차르트 오페라 락〉에도 캐스팅됐다. G

글·박소영 기자

윤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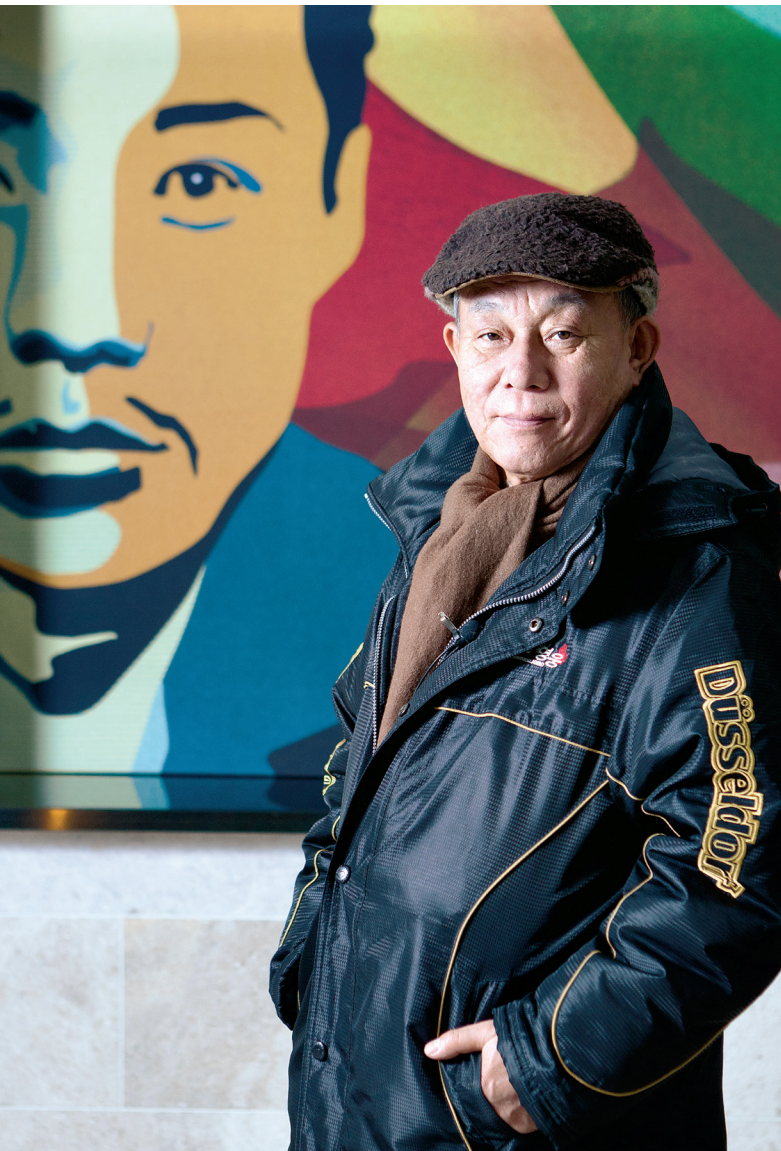
김준현

창작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연출한 윤호진 대표

"고품격 뮤지컬은 생명력 긴 문화상품"

1995년 초연된 역사적인 한국 뮤지컬 〈명성황후〉의 연출자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는 한국 뮤지컬의 1세대다. 공연 3년째를 맞는 〈영웅〉을 한 치의 빈틈없이 무대에 올리기 위해 분주한 윤 대표로부터 한국 뮤지컬의 현재와 미래를 들었다.

이종원 기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의 연출가 윤호진 대표. 안 의사의 얼굴을 담은 〈영웅〉 포스터 앞에 선 윤 대표는 〈명성황후〉와 〈영웅〉이 문화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들라면 역시 고생 끝에 만든 〈명성황후〉지요. 〈명성황후〉가 낳은 '옥동자'격이 〈영웅〉입니다. 이 둘은 우리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몇 십 년이 되어도 이 작품들이 공연되고, 후세에 전해 줄 한국 뮤지컬의 전설,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12월 6일부터 〈영웅〉이 공연되고 있는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뮤지컬 연출가인 윤호진(63)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를 만났다.

윤 대표는 1995년 12월 초연한 이후 지금까지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한 '대한민국 뮤지컬 1세대'다. 비극의 역사를 재조명해 명성황후를 우리 가슴에 불러일으키고, 이어 안중근 의사의 뜨거운 조국애를 다룬 〈영웅〉을 선보인 그는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대부'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그가 연출한 〈명성황후〉는 그동안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등지의 무대에 오르며 대한민국 뮤지컬 수준을 세계에 알렸다. 지난 8월에는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영웅〉이 선보였다. 세계 속의 한국 뮤지컬 현 주소를 말하기에 윤 대표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역사적 소재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알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쓰여진 역사'를 '살아 있는 역사'로 움직여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뮤지컬 〈명성황후〉로 인해 명성황후는 살아 있는 역사로 거듭났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역사적 교훈에 감동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가슴속에 더욱 깊이 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뉴욕에서 〈명성황후〉 공연을 할 때 유대인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명성황후〉를 보면서 일본과 한국만 본 게 아니라 유대와 나치를 보았고 모든 강국과 약국을 보았다.' 그 말에 한편의 역사적 뮤지컬이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세계 속의 한국 뮤지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역사는 짧지만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어요. 연간 공연되는 작품 수가 일 년에 1백50편 이상이란 건 세계적으로도 다작(多作)에 속합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경우 1년에 열 편 정도 신작이 나오고, 롱런으로 이어져 살아남는 것은 한두 편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생존이 어렵죠.

물론 한국 뮤지컬이 모두 퀄리티가 높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 수준 이상으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고, 특히 아시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10년, 중국보다 20년 이상 앞서 있죠. 뮤지컬은 콘텐츠와 더불어 음악과 춤, 연기, 무대디자인 등 볼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뮤지컬 한류'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뮤지컬이 급성장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은 흡인력이 높은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류가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이 드라마란 점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K팝이 뒤따랐는데 스토리라인에 노래와 춤이 이어진 형세죠. 춤이란 것도 그래요. 민속무용이야 전 세계에 아주 많지만, 발레나 궁중무용 등 춤이 발달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한국인이 예로부터 '가무에 능한 민족'이란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비보잉도 흑인춤이지만 지금 한국의 비보이들이 전세계를 주름잡아요.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모여 한국이 뮤지컬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으로 발달했다고 봅니다."

'뮤지컬 한류'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K팝이 전 세계에 파급되며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대중음악보다 한 차원 높은 뮤지컬과 같은 고급 공연문화가 전파되면 그 생명력이 몇 십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만 해도 벌써 17년째 공연이 이어져 20년을 바라보고 있고, 〈영웅〉도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뮤지컬 한류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을 해외 무대에 올리기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몇 차례의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때론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내고 얻은 결과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제작비입니다. 고품격의 뮤지컬을 제작하다 보면 전회 매진이 되어도 적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뮤지컬이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고급문화입니다. 세계 일등상품들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충분한 문화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뮤지컬의 해외공연 지원에 정부와 기업 모두 관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경제만 세계 10권 안에 드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야 국가 경쟁력이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조선DB

한국 뮤지컬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명성황후〉.

'뮤지컬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재정지원은 물론이지만 음악과 춤, 연기, 외국어 등 뮤지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노래가 포함된 뮤지컬이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다중언어 구사가 필수입니다.

스웨덴 그룹 '아바'가 세계적 스타가 된 것도 그들이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획사 차원에서 교육을 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인성교육도 받을 수 있는 종합음악학교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구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간 해외공연을 통해 느낀 것이 우리 것을 얼마든지 세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명성황후〉와 〈영웅〉을 통해 교훈과 감동을 함께 줄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어요.

앞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설화를 무대에 올려 보려고 해요. 미인을 꿈꾸는 왕, 그 왕이 찾아 낸 미인이 하필 도미의 아내였죠. 왕이 그 미인을 차지하기 위해 계략을 꾸며 도미를 쫓아냈으나 결국 그 아내는 자신의 얼굴을 훼손하면서 도미 곁으로 갑니다.

이런 소재를 한 폭의 동양화처럼 무대에 올린다면 충분히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외국 자본 투자와 외국 배우 도입까지 고려해 글로벌한 한국 뮤지컬로 만들 구상을 하는 중입니다."

글·박경아 기자

“예술이 아닌 문화산업 차원서 지원을”

흥행작은 속성상 장기공연…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효과

2011년은 한국 뮤지컬계가 나름대로 행복한 한 해였다.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공연예술 장르로 등극한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꾸준하게 외형적인 매출성장과 예술적으로 내실 있는 발전을 함께 이루어 왔는데, 2011년은 미래를 향해 다시 한 번 도약기를 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뮤지컬은 역사적으로 철저히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연 장르이자 가장 상업적인 공연 상품이다. 그런데 이 뮤지컬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에 대해 지금 뮤지컬 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뮤지컬계의 성장에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매해 많은 작품이 시장에 나왔지만 장기 공연을 지향하는 뮤지컬의 속성상 앙코르 공연이 가능한 흥행작 한 편이 열 편의 실패작보다 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디큐브시어터·블루스퀘어 등 전용관으로 활력

그런 점에서 〈지킬 앤 하이드〉 〈맘마미아〉 〈영웅〉처럼 꾸준히 재공연되고 있는 검증된 콘텐츠나, 신작이지만 성공으로 인해 다음 시즌 앙코르가 보장된 〈광화문 연가〉 〈조로〉와 같은 작품에 참가한 스태프들은 올 한 해를 매우 바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었다.

뮤지컬만을 공연하는 ‘전용극장’도 올해 두 곳이나 새로 개관했다. 서울 신도림동의 대규모 복합시설 안에 위치한 디큐브시어터와 한남동의 블루스퀘어는 양질의 콘텐츠를 시장에 내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한 해였다. 확실히 10년이라는 한국 뮤지컬 활성화 기간에 성장한 인력들이 각자 위치에서 활약을 펼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는 작지만 완성도로 주목받은 창작뮤지컬도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셜록 홈즈〉(레히 제작) 〈모비딕〉(두산아트센터, 모비딕 프로덕션) 〈식구를 찾아서〉(충무아트홀, 극단 오징어) 등이 있다.

여기에 고궁뮤지컬로 새롭게 재공연된 〈왕세자 실종사건〉(서울문화재단, 극단 죽도록 달린다)까지 합하면 메이저 회사가 아닌 독립제작사의 작품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흥행까지 성공시킨 사례가 한 해에만 네 작품이 나왔다. 게다가 이 작품들은 모두 내년 상반기 중에 앙코르공연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관객몰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대극장에서 소극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이 공연되고 성공을 이루다 보니 주·조연급은 물론이고 앙상블을 맡은 뮤지컬 전문 배우들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났고, 창작자·디자이너 등 내부의 인력을 포함한 제작 인력도 신장하고 있다.

이들 중 다른 인접 장르를 오가며 활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뮤지컬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뮤지컬계의 매출도 감소했었고, 얼마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에서도 보듯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고가의 뮤지컬을 즐기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일견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뮤지컬이 태생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공연 장르이며, 따라서 자기 만족도가 높은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규정하며 자신의 취향을 사랑하고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상품’에 해당한다.

뮤지컬만으로 밥벌이가 가능한 수준 올라

이제 앞으로 업계가 노력해야 할 점은 서구에서 받아들인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뮤지컬 콘텐츠로 만들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역수출할 정도의 완성도를 갖춰 이를 글로벌 산업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역수출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인 중에서 세계인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텔링 소재를 찾고 이를 무대에 옮길 수 있는 작가·작곡가·연출가 등 기본 창작자군이 보다 왕성하고도 견고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연 콘텐츠는 연습과정에서 창작자와 배우가 최종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화합작용이 중요하기에 사전 리딩(Reading), 워크숍, 트라이아웃 등의 연습과 중간평가를 겸하는 발전 단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출가와 배우, 음향 감독과 무대 디자이너 등 모두의 화합작용이 필요하다. 뮤지컬 〈에비타〉의 이지나 연출가(왼쪽에서 두 번째)가 박상원(페론 역)과 정선아(에바 역)가 탱고를 추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제작사마다 가지고 있는 작품개발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어드바이저나 쇼닥터와 같은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과의 효율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한국 뮤지컬협회가 준비중인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된다면 업계 안의 자금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선정–개발–투자–제작–성공–유통이 자금의 선순환 과정을 확립할 수 있다.

공연이란 상품은 속성상 매장에 재고가 남지도 않는 무형의 자산일뿐더러 무대에 오르지 못한다면 콘텐츠가 ‘생산’만 되고 ‘유통’은 되지 못하는 미완성 비즈니스에 불과하기에 창작자–제작자–투자자–극장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고 기본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뮤지컬을 문화산업이 아닌 예술로 규정짓고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뮤지컬 콘텐츠는 순수예술보다는 산업적 측면이 강한 문화 분야의 상품에 가까운데도 정작 본격적인 산업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순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금도 뮤지컬보다 훨씬 기초예술인 전통 예술, 미술, 무용, 연극 같은 곳에 쓰여야 하기에 오히려 뮤지컬은 양쪽에서 홀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창작자의 열의에 정부도 통큰 지원 호응을

현재 뮤지컬의 르네상스는 마치 1990년대 중·후반기 한국 영화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그 분위기를 이끌었던 것 중에는 정부가 앞서서 영화진흥정책을 세우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선례가 있었다.

따라서 창작자들의 열의와 전용극장 확충과 같은 민간기업의 하드웨어 마련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통큰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뮤지컬 콘텐츠는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로도 뻗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조성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뮤지컬 종사자들이 새해에도 이러한 ‘진수성찬’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G

글·조용신 (뮤지컬 칼럼니스트·연출가)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올해 12월 10일 1천회 공연을 돌파한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가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되고 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 전수경 등이 출연해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들려준다.

춤추고 노래하고… 신나는 뮤지컬 세상

창작·라이선스 무대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가족뮤지컬도 손짓

뮤지컬 한류의 순풍을 타고 뮤지컬 공연이 풍년이다. 〈맘마미아〉에서부터 〈캣츠〉 〈피터팬〉 〈조로〉 〈영웅〉 〈애니〉 등이 무대를 수놓고 있다. 송년회 대신 뮤지컬 한편 관람하며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말연시 가족·연인·친지와 함께 가볼 만한 뮤지컬들을 소개한다.

〈맘마미아〉

아바의 히트곡 22곡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 등이 초연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맞춰 안정감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해리 역의 이현우, 빌 역의 박윤희가 새롭게 합류해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화려한 의상도 무대를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 중 하나다. 특별 제작된 2백20벌의 의상과 1백55켤레의 신발은 작품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있다.

'댄싱퀸' 등 한국어로 번안된 아바의 노래도 〈맘마미아〉에서 찾을 수 있는 매력으로 꼽힌다.

일시 2012년 2월 26일까지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02-577-1987

〈캣츠〉

초연 30돌… 국내서만 1백만명 이상 관람

〈캣츠〉에서는 안정감 있는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장한 실력파 배우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뮤지컬 〈캣츠〉가 30주년을 맞았다. 〈캣츠〉는 국내 성적도 눈부시다. 화려한 무대와 인상적인 안무로 지금까지 1백만이 넘는 관객이 관람했다. '그리자벨라' 역에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 박해미, 가수 인순이가 캐스팅돼 30~50대의 그리자벨라를 각각 연기하며 명곡 '메모리'를 들려준다.

일시 12월 31일까지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02-3444-0677

〈피터팬〉

생생한 마스크플레이로 역동적 무대

가족뮤지컬 〈피터팬〉은 유명 성우들이 녹음한 생동감 넘치는 대사와 노래로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린이들의 눈길을 끄는 뮤지컬 〈피터팬〉이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피터팬〉의 가장 큰 특징은 마스크플레이를 펼친다는 점이다.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캐릭터별 마스크는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무대로 튀어나온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 마스크를 최대한 작고 가볍게 제작해 연기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플라잉 연기, 텀블링 연기 등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블랙 아트 기법으로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를 실감나게 꾸몄다.

일시 2012년 1월 6~29일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문의** ☎02-762-0010

〈에비타〉

경쾌한 재즈·합창 등 26곡의 감동

〈에비타〉는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배우를 거쳐 한 나라의 퍼스트레이디까지 오른 여인 에비타의 인생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경쾌한 재즈에서 장엄한 미사곡, 웅장한 합창곡 등 26곡의 노래가 감동을 증폭시킨다. 명곡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와 화려한 탱고, 왈츠와 폴카 등 화려한 군무는 작품의 백미로 꼽힌다. 에비타가 성공을 꿈꾸며 부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씬은 24명의 전문 앙상블로 우아한 탱고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일시 2012년 1월 29일까지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3444-0677

〈조로〉

와이어 액션 등 한국 버전으로 재탄생

뮤지컬 〈조로〉가 한국 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새로운 장면을 추가하고 기존 장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버전의 〈조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더해졌다. 뮤지컬 스타 조승우, 박건형, 김준현이 맡은 3인 3색의 조로는 관객의 볼거리도 만족시켜 준다.

이들은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꼽히는 와이어 액션, 실제 불꽃이 무대를 장식하는 'Z' 프레임 테스트, 거대한 십자가와 브리지의 전복 장면을 연출하는 '윈치모터 테스트' 등 기술과 예술이 조합된 완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2012년 1월 15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문의** ☎02-548-1141

연말연시 주요 뮤지컬 정보

지역	공연	장소	날짜	문의
서울	미녀는 괴로워	충무아트홀	2012년 2월 5일까지	1544-1555
	미라클	대학로 미라클 씨어터	12월 31일까지	1588-7890
부산	그리스	부산KBS홀	12월 31일~2012년 1월 1일	1588-7890
	비밥	부산경성대학교	2012년 1월 1일까지	1566-5490
대구	미스사이공	대구 계명아트센터	2012년 1월 1일까지	1599-1980
	골목길	대구봉산문화회관	12월 31일까지	1588-7890
	스페셜레터	대구봉산문화회관	2012년 1월 1일까지	053-421-1980
광주	화려한 휴가	광주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2012년 1월 28일~2월 22일	062-655-3580
울산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묘	CK아트홀	12월 31일까지	052-270-2600
대전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송예술회관	2012년 1월 1일까지	1544-1555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 고뇌와 아픔 그려

정성화와 류정한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대주 배우 조휘가 안중근 역을 새롭게 해석한 연기를 펼친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성황을 이뤘던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 1백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이다.

조국을 위해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배우 정성화가 안중근 역을 맡아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초연 때부터 조도선 역으로 존재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던 뮤지컬 배우 조휘도 이번 무대에서 안중근 역을 연기한다.

일시 2012년 1월 7일까지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1544-1555

〈애니〉

실력파 아역배우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애니〉는 11세 애니가 표독스러운 고아원 원장 해니건을 피해 탈출을 감행한 뒤 억만장자 워벅스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이야기다. 주인공 애니 역에는 〈슈퍼스타K3〉의 손예림뿐만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에 출연한 김지민, 뮤지컬 〈빌리엘리어트〉 〈애니〉에 출연한 김고은 등 실력파 아역배우들이 대거 지원하기도 했다. G

일시 12월 29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114

아동극으로 보여주는 ‘차별 없는 세상’

세이브더칠드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편견 되돌아보기’ 무대 큰 호응

다문화가정 1백만 시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로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에선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차별방지, 상호존중을 위한 다문화 이해 아동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금 특별한 연극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홍지

세이브더칠드런이 올 봄 3개월간 ‘다양한국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인천 약산초등학교의 ‘차별인식개선 연극수업’. 미국 인종차별 사건 ‘로자 파크스 사건’을 통해 아동들이 직접 차별을 경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친구 시내는 ‘다문화’가 아니라 그냥 ‘김시내’라고! 그냥 ‘시내’로 봐 주면 안 돼?”

극중 엄마가 ‘카카인’인 다문화가정의 아동 김시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이름 대신 ‘다문화’라는 별명으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자 주인공 이사야가 울부짖듯 호소한다. 이사야는 다문화가정 친구와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 ‘순 한국인 인증 시험’을 보러 가기도 한다. 연극은 일반 아동 이사야와 다문화가정 아동 김시내의 화해와 우정의 맹세로 막을 내린다.

‘엄마가 모르는 친구’는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으로 잘 알려진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기획, 주최하고 극단 사다리가 제작한 아동극이다. 아동극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들 스스로 다름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차별인식 개선’ 수업을 연극으로 꾸며

이번 연극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국 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시작됐다. 올해 시작한 ‘다양한국 만들기’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처한 이주배경 다문화 아동에게는 이중언어를, 다수자인 일반 아동에게는 차별방지를 가르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국 만들기’ 캠페인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똑같아지기’를 강요하는 대신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다문화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연극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교육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모티브로 공연을 제작했다는 점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올 봄 서울과 경기 5개 초등학교에서 극단 사다리와 함께 3개월 동안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일종의 연극치료 수업인 ‘차별인식개선 연극수업’을 진행했다. 일반 아동들로 하여금 연극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차별받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직접 느껴 보게 하자’는 취지의 수업이었다.

연극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은 연극을 통해 차별과 따돌림 등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극과 뮤지컬, 공익광고의 장면과 대사 등을 만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아동들의 목소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전문 작가와 연출가의 손을 거쳐 이번 연극의 주요 장면과 대사로 만들어졌다.

반에서 누군가가 차별을 당할 때 용기가 없어 말리지 못했다는 아동들의 경험담은 ‘우물쭈물하며 뭐가 진짜 자신의 마음인지 헷갈려 방황하다 결국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는’ 주인공 이사야의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연극수업 사례로도 활용했던 미국 인종차별 사건 ‘로자 파크스’의 배경 ‘버스 안’은 이번 연극의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채택됐다. 버스는 ‘엄마가 모르는 친구’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만나고 차별적 관계와 에피소드가 빚어지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공연 수익은 다문화 이해교육 후원금으로

‘차별인식개선 연극수업’과 이번 공연을 기획한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차별과 편견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아동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반 아동들이 차별받는 소수자의 입장에 서 본다면 자신도 모르게 내재돼 있는 차별적 태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오후 4시 공연에는 차별인식개선 연극수업에 직접 참여했던 서울 전농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있었다. 연극을 관람한 아동들은 “다문화 친구들은 우리랑 별다를 게 없으니까 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문화는 나쁜 게 아니다” “다문화 친구들을 만나면 잘 대해 주고 싶다”는 등의 관람 소감을 밝혔다.

‘엄마가 모르는 친구’ 공연 관람료는 1천원이며 12월 31일까지 공연한다. 공연 수익은 2012년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국 만들기’ 캠페인 가운데 다문화 이해교육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글 · 박근희 기자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www.sc.or.kr ☎02-6900-4400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송선미

“차별은 누구나 못참아…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박근희 기자

12월 21일 오후 ‘엄마가 모르는 친구’ 공연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인 배우 송선미씨가 안산 책키북키지역아동센터(이하 책키북키센터) 아동들과 함께 참석해 연극을 관람했다.

공연관람 소감은.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함께 공연을 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라 사실 내용이 약간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연 보고 웃으며 반응 보이는 아이들을 보니 귀여웠어요.”

연극 주제가 ‘다문화’였다.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이제 세련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나갔을 때 차별대우를 받으면 못 참듯이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호해 줘야 할 수준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경제발전 속도만큼 국민들의 정신적 성숙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를 맡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SBS ‘희망TV24’ 프로그램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자마자 저체온증으로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고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죠. 세이브더칠드런은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등을 통해 이전부터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 아동이나 아동 단체, 아동 관련 캠페인에 관심이 있었는지.

“사실 평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동들에 대해 알게 됐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 갈 수 있는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것만큼은 분명한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사로 활동한지 6개월 정도 지났다. 그간 느낀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줄 몰라 사실 당황하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책키북키센터 아이들과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얼굴을 익혀 가고 있어요.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이렇게 인연을 맺은 아이들과 언젠가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로서 한마디하면.

“아직은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힘을 기르고 싶어요. 선후배, 동료 연예인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활동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생활화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기 생활과 함께 봉사 활동 역시 평생 펼치고 싶어요.”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핵테러 방지’ 지구촌 공감대 형성에 최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e-리포터단’ 60명, 온·오프라인서 활발한 활동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행사 지원을 위해 선발된 60명의 ‘e-리포터단’이 출범식을 갖고 전 세계를 향해 핵안보정상회의 소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핵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구촌 건설을 목표로 이뤄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보다 널리 알리고자 온·오프라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잠깐 엿보았다.

박경아 기자

핵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세상을 지키려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널리 퍼뜨리는 ‘e-리포터’ 이영제, 김정빈, 황선빈, 이예림, 심요섭씨(왼쪽부터).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우리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e-리포터’들 입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인근에서 핵안보정상회의 행사 지원을 위해 선발된 ‘e-리포터’들 가운데 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출범한 ‘e-리포터단’은 현재 뉴미디어·SNS·홈페이지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60명이 활동 중이다.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소식을 전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4개 국어 능통자, 국제회의 통역봉사자, 인턴기자, 패션디자이너, 정보기술(IT) 컨설턴트 등 경력도 다양하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제각기 다른 빛깔로 핵안보정상회의 홍보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뉴미디어(블로그) 통신원 이영제(27·남), 심요섭(19·남)씨 ▲SNS 통신원 김정빈(24·남), 이예림(20·여)씨 ▲홈페이지 통신원 황선빈(20·여)씨 등이었다.

고교생부터 회사원·주부까지 다양한 참여

‘e-리포터’ 지원동기와 활동계획을 말하는 이들의 열정은 겨울 추위조차 녹일 정도로 뜨거웠다. “지난해 열린 서울 G20정상회의 당시 ‘청사초롱 리포터’로 활동했던 경험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e-리포터 활동까지 이어졌어요.”

홈페이지 통신원 황선빈씨는 e-리포터 참여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질문은 한국 기자에게 받겠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서 ‘같은 아시아’임을 주장하며 질문을 하더군요. 중국 기자 질문이 끝나자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정치적 파워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목도하며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빈씨는 그런 경험 때문에 올해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정해지는 전공도 정치외교학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취업고민도 잠시 미루고 ‘국격 높이기’ 나서

“국격이 뭔지 관심도 없거나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국격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도 국격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e-리포터 활동으로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 중이라는 김정빈씨도 ‘청사초롱 리포터’ 출신의 SNS 통신원. “제 부모님은 제가 e-리포터로 활동하는 걸 모르세요. 취업준비에도 바쁘고 고민도 많았어요. 하지만 청사초롱 리포터 활동을 통해 일회성 운영요원들과 달리 직접 취재원을 찾고, 유명인과 기습 인터뷰도 해 보고,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제가 기여할 게 많다는 것을 배웠기에 지원을 결정했어요.”

정빈씨는 “사실 요즘 취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하라는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뉴미디어통신원인 이영제씨 역시 정빈씨와 비슷한 취업 고민을 안고서도 뉴미디어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영제씨는 대학시절부터 어학연수·시사 관련 글을 올려 온 파워블로거.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지난해 가을 대학 졸업 후 기자를 꿈꾸며 언론사 입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긍정적이지도 않았어요. 주변을 보면 핵테러 방지와 대처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한 핵을 다루는 회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했듯 비판적인 분들에게 ‘모르고 싫어하기보단 알고 비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영제씨는 “특히 그동안 제 블로그 글을 애독해 주신 아주머니·아저씨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올리고 싶다”고 말해 좌중이 잠시 웃음바다가 됐다.

이날 참석자 중 가장 어린 이는 대학 1학년인 심요섭씨. 요섭씨는 시청자 촬영 영상을 방영하는 KBS 1TV의 여행 프로그램 ‘세상은 넓다’를 통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세계 곳곳의 여행지에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선보인 경력을 갖고 있다.

조선DB

‘e-리포터’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1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D-100 기념 대국민 행사.

“앞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세대도 생길 거예요”

요섭씨는 “좀 남다른 기자단 활동 계획이 있다면 고교 2학년 때부터 해 온 블로그 운영 경험과 여행 경험을 살려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의 핵안보정상회의 참가를 알리는 방법으로 기자단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엔 터키의 유적 사진과 더불어 원자력 분야를 소개한 것도 바로 그런 계획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e-리포터들 사이에서 SNS 통신원 이예림씨는 ‘평범한 눈높이’라는 영역을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평범한 것이 비범하다는 격언을 살리고자 하는 예림씨는 영어를 전공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를 알게 됐다고 했다.

“전 솔직히 내세울 만한 특별한 활동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저와 같이 평범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주듯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지 알리려고 해요.”

예림씨는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G20정상회의가 끝나고 G20세대가 나왔다면 이젠 핵안보정상회의 세대가 탄생할거예요.”

핵안보정상회의 ‘e-리포터’를 통해 새롭게 알고, 배워 가는 이들의 대화는 생기발랄했다. 다음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니 여러분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 가길! G

글·박경아 기자

"생물자원 뉴스 전하며 환경에 눈떴어요"

2011년 그린기자단 60명, 5개월간 멸종위기종 등 생생한 소식 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리더들이 환경부의 2011년 생물자원보전 그린기자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라져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때로는 파괴되는 환경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나름의 시선과 고민을 기사로 담아냈고, 이들의 기사는 환경정책을 알리는 뉴스레터로 사방에 전해졌다.

이경민 기자 / 조선DB

2011생물자원보전 그린기자단원으로 활동한 강수현 양과 수현 양이 취재한 붉은여우와 두꺼비. 그린기자단원들은 올해 수달, 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에 놓인 우리 동식물을 알리고 보호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

"솔나리는 꽃이 7~8월에 홍자색으로 피며, 줄기 끝에 1~4개가 땅을 향하여 달립니다… 일반 나리꽃에 비해 꽃에 반점이 있어 원예업자나 야생화 채집가들에게 무단채집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현재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 안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월악산 깃대종 '솔나리'를 찾아서, 충주고 3학년 이대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져가는 동물 분류군은 양서류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양서류 6천여 종의 3분의 1은 멸종위기에 빠져 있다. 2백 종은 최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 주변에서 개구리와 두꺼비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주에서 두꺼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부와 개발자의 '아름다운 양보'로 지켜낸 생명이기 때문이다."

–청주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을 아시나요? 과천외국어고 1학년 강수현

매달 우수기사 3편 온라인 뉴스레터에 실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에 반갑고도 놀라운 일이 생겼다. 1970년대 세운 원광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생긴 운곡저수지 때문에 3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곳에 소리 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씩 싹트워 오베이골(운곡)습지가 생겨났다. 사람이 빈 자리에 스스로 뿌리를 내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껴보기 위해 태풍 예고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으로 떠났다."

–30년 만에 돌아온 오베이골(운곡)습지, 대전 중앙고 2학년 박태훈

우리 청소년들이 전하는 정다운 우리 동식물들의 반가운 소식이다. 전문적인 기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맑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물들의 소식을 전한 이들은 환경부의 2011년 생물자원보전 그린기자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리더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생물자원보전 그린기자단으로 위촉하여 매년 60명씩 모집해 왔다.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매달 한 편씩 생물다양성에 대한 뉴스를 발굴해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들의 기사가 실리는 뉴스레터는 환경보전협회 이름으로 매월 15일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가입자 등 약 7만6천명에게 전달되는 환경정책 온라인 소식지다. 환경보전협회는 기자단이 송고하는 기사 가운데 매달 우수기사 3편을 선정해 뉴스레터에 실어왔다.

"공부와 기자단 활동 시간관리 좋은 경험"

충북 충주고 3학년 이대원(18) 군은 올해 그린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기사 네 편이 모두 우수기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대원 군은 "고3이라 입시준비만으로도 바빴지만 지난해 청소년리더 활동을 하면서 멸종위기종에 대해 많이 공부해 둔 것이 도움이 됐다"며 "생명공학자가 꿈이어서 이번 그린기자단 활동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관련 기사를 쓰려다 생각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어요. 취재 대상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수달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충북 괴산군 달천면에서 온 가족을 동원해 수달을 찾았어요. 겨우 흔적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다니까요."

올해의 첫번째 그린기자단 뉴스레터(8월)에 우수기사로 뽑힌 월악산 깃대종(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종, 환경보전 정도의 지표가 된다)인 솔나리를 취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은 기사를 통해 위치가 알려지면 남획을 당할까 우려해 대원 군에게 군락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험준한 곳에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대원 군과 함께 그린기자단 2기로 활동해 온 과천 외국어고 1학년 강수현(16) 양은 기자단 활동기간 중 매달 한 편씩 환경에 관한 기사를 써오다 지난 10월 '청주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을 아시나요?'를 뉴스레터에 올렸다.

수현 양은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멸종위기에

조선DB

그린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이대원 군이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희귀종 솔나리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놓인 동물들을 보면 울컥하고 감정이 올라왔다"며 그린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학기 중에는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름방학 때 미리 기획을 잡았어요. 사진이나 현장취재가 필요하면 주말을 이용해 하루 만에 끝내도록 했고요."

수현 양은 학업을 위한 시간과 기자단 활동을 위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그린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수현 양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마지막 기사를 쓸 때의 일이라고 했다.

수현 양은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멸종위기에 놓인 토종생물 붉은여우에 대해 쓰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붉은여우를 복원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토종복원동물센터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업무가 바쁘다며 센터장이 사절했다는 것이다. 수현 양은 "기사를 통해 붉은여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끈질기게 설득했고,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던 센터장도 결국 허락해 주었단 것이다.

올해 그린기자단원 중 대원 군과 수현 양, 그리고 대전 중앙고 2학년 박태훈 군, 제주 중앙여고 1학년 김민경 양, 대원외국어고 2학년 조혜인 양 등이 올해 활동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제주 오현고 2학년 고기환 군 등 7명이 환경보전협회장상을 받았다.

그린기자단은 내년 5월경 3기를 모집해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그린기자단에 지원하려면 먼저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리더로 1년간 활동해야 한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문의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8 및 환경보전 협회 ☎02-3407-1508~9
환경부 www.me.go.kr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www.epa.or.kr

영화스태프 실무능력 재교육 길 열리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실무교육센터 출범… 최신 기술 가르쳐

영화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락거리 중 하나다.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재미있는 구경거리지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생활고'에 치여 녹록지 않았던 것이 한국영화계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영화 스태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영화산업의 복지를 위한 현장 실무교육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일하는 시기가 일정치 않은 영화 스태프를 위해 실무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스태프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장과 같은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촬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모습.

"레디~ 카메라! 액션!" "컷!"

분주함 속에 활기가 넘치는 영화촬영장은 누구에게나 한번쯤 참여해 보고 싶은 현장이다. 우리나라 영화계는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소위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이다.

최진욱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대표는 영화 스태프들의 '생계보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한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은 평범한 직장인처럼 한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작품별로 일을 하는 계약직원들입니다. 즉 A라는 영화가 제작된다고 하면, 스태프들은 작품의 준비를 위해 참여하여 그 영화의 촬영이 끝나면 계약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1년에 꼭 두세 편의 영화를 찍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료증 발급 통해 경력인증에도 도움

일거리가 없는 스태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대리운전, 편의점 점원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수년간의 경력을 쌓은 스태프들이 견디지 못하고 영화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았다. 지난 12월 23일 '사단법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실무교육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영화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5년부터 한국영화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영화스태프전문교육'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올해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산업인력공단 국가전략컨소시엄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12월 23일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실무교육센터가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출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금 16억원을 지원받아 촬영장비 등 교육장비를 구입해 지난 12월 23일부터 사단법인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교육센터는 영화 스태프들이 작품이 끝나고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실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현장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발 빠르게 들어옵니다. 스태프들도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교육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교육센터에서는 현장과 같은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료증 발급을 통해 경력인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 대표의 말처럼 영화인들은 교육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제까지 노사공동훈련사업에서 실행했던 실무교육에서 매 기수 참가자의 90퍼센트 이상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영화교육프로그램 중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했다. 여기에 국고지원의 무상교육이라는 점은 더욱 매력적이다.

또한 이번 교육부터는 기존과 달리 제작과 연출 전공의 경우 실무전문과 실무연수 과정을 분리하여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장 중심형 실무교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기수별로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다르게 구성해 신규 교육생뿐 아니라 기존에 한번 교육을 들었던 교육생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

영화산업실무교육은 영화제작, 연출, 촬영·조명, 미술 등 4개 분야의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화의 기획, 투자,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 프로듀서 실무, 편집, 홍보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어 영화계에 입문하거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6주간의 이론 강의 및 실습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교육생들끼리 함께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최신의 Red Epic 카메라 및 각종 조명 장비, 후반작업 과정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어 호응이 좋다.

생계비 지원 훈련 인센티브도 준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훈련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다. 2009년 영화산업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책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영화발전기금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근로환경개선과 훈련인센티브·실업부조'가 64.78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이에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훈련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최 대표는 "영화산업 종사자도 4대 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훈련 인센티브제'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화 스태프들이 영화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실무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G

글·손수원 기자

목말랐던 한국책 선물…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칭다오청운한국학교에 도서 5백31권과 DVD 등 기증

지난 12월 9일, 중국 칭다오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전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책과 각종 DVD 등의 자료를 청운한국학교에 기증한 것. 평소 한국어 책과 교재에 목말랐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며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기증한 책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청운한국학교 학생들. 학생들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올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중국 칭다오시 이창구로 가면 교문 앞에서 중국어로 유창하게 환영인사를 건네는 한국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국 동포들의 자녀 8백여 명이 공부하는 '칭다오청운한국학교'이다. 지난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직원들이 청운한국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문화부는 이날 청운한국학교에 한국문화와 역사에 관한 교육용 도서와 DVD 등 학생들이 목말라 하던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9~23일까지 5일간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 참석 차 칭다오를 방문한 박선규 차관이 청운한국학교에 교육자료를 지원키로 한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박선규 차관 9월 방문했을 때 지원 약속

당시 공식일정 중 짬을 내 칭다오 유일의 한국학교를 돌아본 박 차관은 학교에 한국어로 된 수업자료와 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김진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청운한국학교야말로 미래 중국 전문가를 키우는 보배 같은 기관"이라고 말하고, "학생들이 우리의 것을 잊지 않고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의 김진곤 홍보관이 책과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모습(왼쪽 사진). 김진곤 홍보관을 비롯한 인사들과 교사,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중 한국 대사관의 김진곤 홍보관을 비롯해 오세천 칭다오 영사, 청운한국학교 김진규 교장, 문화부 김파중 사무관, 현지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에게 악수를 건네던 김진곤 홍보관은 "중국 내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학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진다. 앞으로 청운한국학교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지원된 자료는 KTV와 KBS, EBS 등의 협조를 받아 모인 것들로, 책 5백31권을 포함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VOD와 교육용 DVD 1백62개, 각종 교육용 CD 등이 포함됐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자료와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유치원생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뽀로로' DVD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료를 전달받은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전교회장 이나래 양은 "정말 행복하다. 저희 학교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참석한 아이들을 대표해 소감을 건넸다. 이어 "우리 학교는 도서관 규모가 작고, 책도 많지 않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렇게 보고 싶었던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 앞으로 도서관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며 한껏 들뜬 표정을 지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연 군 역시 전달식 내내 행복한 표정이었다. 이 군은 "예전부터 어머니가 고국인 한국의 문화를 많이 접하기 위해선 독서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 나오는 신간들을 구해서 읽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책과 다양한 교육자료까지 함께 받게 되니 한국이란 나라가 타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들은 중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들이기에 앞으로 학생들의 취미 생활은 물론 독서를 중요시하고 있는 청운한국학교에서 다방면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도로 운영 중인 한글학교에서는 수업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콘텐츠로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

청운한국학교 교사들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귀한 자료들은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선물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더없이 감사한 자료"라고 입을 모았다. 칭다오청운한국학교 김진규 교장은 "지난번 박선규 차관이 방문해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니, 아이들이 고국인 한국에 대해 무척 각별한 생각을 갖게 될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과 달리 서점이 많지 않아 책이나 교육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청운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이번 자료들은 더없이 귀중한 선물이 되었다. G

글과 사진·김준영 (대학생)

"나는 마더남"… 아이 키우는 아빠들에 박수!

온라인 모임 '100인의 아빠단' 왕성한 활동… 송년발표회·시상식 가져

보건복지부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온라인 모임인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100인의 아빠단' 송년 발표회 및 우수 활동자들의 시상식이 있었다.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마더남'들을 소개한다.

'100인의 아빠단'에서 우수활동상을 받은 안종수씨는 아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60일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우수활동상 안종수씨

육아휴직 60일간 아이와 함께 한 모습 기록

"아빠, 아빠를 연발하며 언제든 나의 품으로 쏙 들어온다." '100인의 아빠단' 우수활동상을 받은 안종수(35)씨가 60일간의 육아휴직을 마치던 날 개인 블로그에 남긴 말이다. 안씨는 일명 '60일 아빠'로 통한다.

그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 내 기업문화팀에서 근무하는 안씨는 업무 비수기를 활용해 비교적 수월하게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선 안씨가 육아휴직 60일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는 '아빠 각인시키기'였다. 아이가 엄마만 따르고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안씨는 아이와 놀아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을 고안해냈다. 그 중에는 '목욕시키기'와 '책 읽어주기'를 비롯해 '아이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미리 편지 써놓기', '본인이 어릴 적 찍었던 사진과 똑같은 포즈로 아이 사진 찍기' 등이 포함돼 있다. 그의 블로그 '60일 아빠' 코너는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가득하다. 모두 아이가 자란 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다.

안씨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사 분담도 도맡아 했다. 요리부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은 안씨가 담당하고 빨래나 집안 청소는 아내 박동심(28)씨가 하는 식이다. "예전에는 집안일이 힘들다고 투정부리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는 "하루 종일 육아와 가사에 신경써야 하는 아내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씨는 '100인의 아빠단' 체험 활동에 대해 "마음으로는 항상 식구들을 생각해왔지만 늘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깊어진 것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마더배우미상 최원혁씨

스타 멘토들의 노하우 후기 올리며 전수받아

육아의 90퍼센트를 전담하고 있다는 최원혁(37)씨는 이번 시상식에서 '마더배우미' 상을 받았다. '마더배우미'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마더하세요 블로그'에서 육아·건강·놀이·가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체험한 뒤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는 '마더남'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100인의 아빠단' 신청 계기에 대해 "육아에 대한 또 다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100인의 아빠단'에 신청하기 전, 대다수의 아빠들처럼 육아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복지부에서 알려주는 육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마더하세요 블로그'에서 박준형, 염경환 등 스타 멘토들이 알려주는 육아수칙 동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했다"고 말했다.

자신만의 육아 노하우도 공개했다. 최씨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많이 안아주는 등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면서 "아이와의 교감이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도 중요한 육아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그는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은 아이의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마더인기상 조안기씨

딸 사진만 8백장 이상… '대표 딸바보' 인증

"도너츠형 소파에 공을 풀어 작은 풀장을 만들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조안기(37)씨는 3백20개가 넘는 육아일기와 8백장 이상의 아이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해 '마더인기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잡지 화보 촬영 가족 5팀에 뽑히기도 했다. 조씨는 "해나에게 큰 추억거리를 남겨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다른 아빠들이 장난감 블록 쌓기나 뽕망치 놀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작년 5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엄마들의 커뮤니티는 많은데 아빠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과 정보를 교류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블로그는 아빠들은 물론 아이 엄마들도 자주 찾는다. 육아에 무신경한 남편들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블로그를 찾는 단골 방문자 중에는 조씨의 양가 부모님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손자·손녀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양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마더알리미상 홍정우씨

10년째 육아일기… 아들까지 인기인으로

홍정우(38)씨는 10년째 육아일기를 쓰고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왕성한 온라인 활동을 하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블로거이기도 하다. '100인의 아빠단'에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 육아 소식을 전하는 '마더알리미'로 활동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홍씨는 "마더알리미'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일반 홍보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육아 커뮤니티라서 믿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씨의 아들 홍민기(10)군은 인터넷 상에서 이미 인기인이다. 민기는 유아 시절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누리꾼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어느 덧 민기는 아빠의 가족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홍씨는 "민기가 옛날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고 매우 좋아한다"면서 "블로그 이웃들이 남긴 글에 덧글을 남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남겨 놓은 추억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실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G

글·김이슬 인턴기자

'마더하세요' 블로그 www.motherplus.blog.me

'마더남'이란

마더남이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남편의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마더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 '엄마 되세요'의 합성어) 캠페인에 동참하는 아빠들을 일컫는 말이다. '마더하세요' 캠페인에선 육아에 무지한 아빠가 스타 멘토와 함께 요리·놀이·육아·건강 등의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 고수가 되는 과정을 '마더하세요'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리는 프로젝트 '100인의 아빠단'이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정책 홍보 잘하려면 '첫인상'이 중요하다

미소금융·보금자리주택 같은 네이밍 필요… 총리실, 기법 담은 책자 내놔

기업의 마케팅에서 '네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인상으로 오래 기억되는 이름은 성공적인 마케팅의 시작이다. 마케팅 석학인 필립 코틀러는 "현대는 기억되지 않는 브랜드의 거대 소멸기"라며 네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홍보에서도 네이밍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네이밍으로 공감하라〉는 책자를 펴냈다. 정책 네이밍의 우수사례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 네이밍 기법을 담았다.

보금자리주택이 태어난 것은 지난 2009년의 일이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했을 정도다.

보금자리주택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정책의 혁신성과 서민친화성 때문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책의 명칭에도 공이 돌아가야 한다. 쉽고 친근한 단어를 사용해 친서민 이미지가 결합해 정책의 신뢰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 이름만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과 기대를 심어준 것이다.

정책의 성공은 결국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통해 달성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의 네이밍은 국민이 해당 정책에 대해 처음 접하는 용어다. 정책의 '첫인상'인 셈이다. 그만큼 긍정적인 이미지로 효과적으로 오래도록 전달될 필요가 있다.

40개 기관 1백10개 사례 소개

최근 국무총리실이 출간한 〈네이밍으로 공감하라〉는 정책 네이밍의 매뉴얼로 손색이 없다. 40개 기관 1백10개의 정책 네이밍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네이밍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프레임 선점, 긍정적 이미지 조성, 대국민 전달력 제고, 감성적 공감 확보를 성공적인 네이밍의 '왕도'로 제시하고 있다. 총리실은 향후 네이밍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책 네이밍 자문단'을 운영해 대국민 정책 소통의 토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홍보에서 네이밍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억하기 쉽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인상을 심으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현장.

❶ 프레임 선점 | 이슈를 선점하라

프레임이란 세상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정책에서 프레임을 선점한다는 것은 해당 정책이 어떤 이슈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네이밍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숫자를 활용하면 과학적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기억하기도 쉽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이 우수사례로 꼽힌다. 이 정책은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정의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만 5세아 보육비를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5세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5세 누리과정'은 5세라는 숫자와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누리'가 결합해 정책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❷ 긍정적 이미지 조성 | 서민적이고 트렌디하라

정책의 이름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정적인 인상의 이름을 가진 정책에 호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네이밍은 정책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령 복권 판매액의 상당부분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나눔로또'의 경우 최근 전 사회로 번지고 있는 '나눔'이라는 트렌드를 접목해 정부가 사행화를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는 것은 물론 '복권은 기부와 나눔'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네이밍도 적잖다.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는 '이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때문에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훼손된 케이스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는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면서 '아동보호'라는 정책의 취지가 묻힌 것으로 평가된다.

❸ 대국민 전달력 제고 |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정책 네이밍은 정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 니즈가 반영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친근감이 높아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1인 창조기업, 경인아라뱃길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정책 네이밍 10계명**
>
> 1 대중의 가치를 반영한다. 기존 정책 브랜드와 차별화한다.
> 2 국민의 시각에서 듣기 좋게 표현한다.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 3 정책 고객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새로워야 주목받는다.
> 4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은 정책의 세세한 내용보다 이미지로 기억한다.
> 5 정책의 본질적 의미를 유지한다. 정책 특징과 혜택을 반영하여 무엇이 알려지길 원하는지가 나타나야 한다.
> 6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각(4음절 이내), 음성(발음), 의미 모든 면에서 기억하기 쉬어야 한다.
> 7 부처의 정체성을 부각하여 목표 이미지를 표현한다. 개별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일된 브랜드로 만들어야 효과적이다.
> 8 평범하고 진부한 네이밍은 피한다. 외래어(한자, 영어) 등 마냥 좋은 말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
> 9 좋은 이름은 '짧은 시'와 같다. 소리와 리듬감을 살려 반복 사용해야 친밀감을 줄 수 있다.
> 10 대국민 공모 및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한다. 발표된 네이밍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마트와 할인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부흥을 위해 도입됐다. '온누리'는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친근감이 높다.

이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 그래서일까. 온누리상품권은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❹ 감성적 공간 확보 | 국민과 교감해 마음을 얻어라

국민들의 감성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음으로 다가가 국민과 교감하고 이를 통해 공감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촌(村)스러워 고마워요'가 그런 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농어촌의 공익적인 의미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 네이밍은 '촌스럽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고마워요'라는 따뜻한 감성과 결합해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촌(村)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체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감성적인 공감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

글·변형주 기자

문의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실 ☎2100-8834

“사카린 유해물 아닙니다”

식약청, 20년 만에 소주·양조간장 등 8개 식품 사용기준 행정예고

발암물질로 의심받아 대부분 음식에 사용이 제한됐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이르면 새해 ‘해금(解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던 탁주나 간장에도 앞으로 사카린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스 종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 종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 커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사카린 사용 기준을 새로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카린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드는 사카린은 설탕보다 3백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 가장 싸다. 하지만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된 이후 세계 각국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제한적으로만 사용돼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젓갈·김치·절임식품과 일부 음료수를 제외한 다른 음식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카린이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인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 사용 규제를 풀었다. 앞서 WHO·유럽연합(EU)은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어린이 과다복용 우려… 아동 기호식품은 사용 배제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었고, EU나 일본에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당분 섭취가 늘어 비만·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칼로리가 없는 사카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사카린을 과학이 아닌 사람들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며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카린 ‘해금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카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새해 1월 초까지 사카린의 일부 식품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일러스트·박상훈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여전히 사카린의 일부 식품 사용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특정 제품을 허용하고 특정 제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일이 이걸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사카린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사카린 첨가가 허용된 어묵이나 음료 등을 통해 어린이들은 이미 하루 권장량의 42퍼센트에 달하는 사카린을 섭취하고 있어 과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관리과장은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기호식품(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에서 사카린 허용을 배제했다”면서 “식약청은 어린이들의 사카린 섭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과다 섭취가 우려될 경우,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오동룡 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아이유

돌아온 특급… 감동 기부로 '스트라이크'

박찬호, 고향팀 한화와 최저연봉 계약… 최대 6억원 아마야구 발전에 쾌척

2011 한국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중심으로 떠올랐던 박찬호가 고향팀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다. 동양인 메이저리그 최다승(1백24승)을 올린 그가 한국야구에 뛰어드는 과정에는 우려와 희망이 교차했다. 특별법을 놓고 특혜 시비를 일으켰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꿈에 그리던 고향역에 종착했다. 그것도 의미있는 선례를 남기고. 즉 자신이 받아야 할 연봉을 모두 국내 아마추어 야구 인프라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찬호는 지난 12월 20일 프로야구 한화 입단식을 가졌다. 이날 공개된 박찬호의 연봉은 놀랍게도 KBO 규약상 최저연봉인 2천4백만원이었다. 한화는 대신 박찬호에게 애초 주려고 계획했던 연봉 4억원과 옵션 2억원을 포함한 최대 6억원을 아마야구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박찬호는 연봉 2천4백만원도 꿈나무들을 위해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부를 통해 연봉 논란을 잠재우고 특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등 박찬호다운 해법이었다. 그의 연봉 2천4백만원은 한창 잘나가던 시절 몸값과 절대 비교하면 '반나절 몸값'이다. 하지만 그는 숫자를 지우고 꿈을 그렸다.

이 같은 박찬호의 '통 큰 결단'에 대해 야구팬들은 박수를 보냈다. 한화 이글스 골수 팬인 회사원 김기홍(40)씨는 "박찬호는 비록 황혼기에 접어든 노장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 1백24승을 거둔 대투수였다"며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야구를 위해 백의종군한 그의 행보는 앞으로 그가 거둘 성적과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호의 한화 입단에는 '특혜'가 작용했다. 한국 프로야구 출신이 아닌 해외파 선수가 국내구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박찬호는 드래프트를 신청하는 원칙 대신 특별법에 호소했다.

야구계는 찬반논란으로 뜨거웠고 KBO 이사회는 지난 12월 13일 한화 입단을 허용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해 길을 터 주었다. 해외에서의 공헌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특혜를 주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원칙의 훼손 문제를 야기했다.

박찬호는 지난 1998년에도 사실상 특혜를 누렸다. 방콕 아시안게임에 한국대표로 참가해 금메달 주역으로 활약했다. 태극마크를 달았던 것은 고국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병역면제 혜택의 이유도 컸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승전보를 전해 주어 IMF 시름에 잠긴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준 덕택이었다.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는 군복 대신 태극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고 메이저리그 1백24승까지 달렸다. 이번에 두번째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외 공헌도 인정… 특별법으로 복귀 특혜

일부 야구인들은 은퇴할 시기에 한국야구에 뛰어들었다는 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차라리 일본 오릭스에 입단하지 않고 2010년에 한국야구의 문을 두드렸어야 옳았다는 이가 많다.

이유가 어쨌든 일본에서 부진과 부상을 당해 방출된 뒤 한국야구에 복귀했다. 한 야구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의 행보치고는 모양새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보투수로 불리는 선동렬 KIA 감독과 비교하기도 한다. 선 감독은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4년간 뛰고 자신의 구위가 떨어지자 은퇴했다. 요미우리와 메이저리그 보스턴이 손짓을 했으나 고민 끝에 포기하고 야인이 됐다. 대신 선수가 아닌 KBO 홍보위원으로 야구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프로야구 경험이 없는 박찬호는 고향 팀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했다. 수구초심의 마음에서 선 감독과는 다른 처지일 수 있다.

박찬호는 입단회견 자리에서 "한화는 중고시절 당연히 내가 프로에서 뛰어야 할 팀으로 생각했다. 오렌지 유니폼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이자 목표였다"고 부푼 소감을 밝혔다.

"감독님이 저를 투수로 기용해 주신대요" 한화 유니폼을 입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입단식을 마치고 한대화 감독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화구단은 1군 엔트리 한 자리를 마흔 살 박찬호에게 주었다. 젊고 유망한 신인선수의 몫을 그에게 투자한 것이다. 구단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선발투수로 10승 이상을 따내고 후배들에게는 성공의 역할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10승을 성공의 기준선이라고 본다면 달성 가능성은 반반이다. 성공을 점치는 이들은 노련함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그는 전성기 시절의 무서운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지는 못한다. 평균 스피드는 1백40킬로미터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10승 이상 성적 거두면 관중동원 '빅카드'

그러나 베테랑답게 마운드에서 여유가 넘치고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을 갖추고 있다. 땅볼을 유도하는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고 완급 조절과 타이밍 뺏기로 10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구력과 체력, 부상 가능성 때문에 10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박찬호는 가끔 실투를 하는 편이다. 상대를 압도하는 구위가 아닌 만큼 제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타를 맞을 수 있다.

한 경기에 1백개 이상을 던져야 하는 선발투수의 체력도 필요하다. 한국 타자들은 유인구에 잘 속지 않는 등 일본 타자들과 비슷하게 진화하고 있다. 공격적인 피칭으로 투구 수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5회 들어 급격히 구위가 떨어질 수 있다.

부상은 나이 많은 선수들에게는 항상 찾아온다. 오릭스 시절 운동 도중 대퇴부 근육 파열상을 당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찬호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는 분야는 흥행이다. 한국야구는 내년 7백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벌써부터 이승엽, 김태균과 함께 흥행 트리오로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2001년 이종범(KIA), 2007년 최희섭(KIA) 등 해외파가 복귀하자 구름관중이 몰려들었다.

박찬호가 10승과 7백만 관중을 이끌어 내는 힘을 보여준다면 실로 '아름다운 회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박수와 환호의 2012시즌이 될 것인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안고 한국야구에 뛰어든 박찬호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벌써부터 봄바람이 기다려진다. G

글 · 이선호 (OSEN 야구전문기자)

〈리빙 카툰전〉 갖는 조관제 화백

“언제나 다시 찾게되는 가족을 담아봤죠”

‘가족’은 핵가족화되고 삭막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편안함과 온기를 느끼게 해 주는 단어다. 새해 1월 29일까지 서울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전시실에서 열리는 조관제 카툰전시회는 가족은 물론 세상 모든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다.

김동우 기자

카툰작가 데뷔 40주년을 맞은 조관제 화백. 그의 바람은 “카툰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승자와 패자의 의미가 쓰임에 따라 결정되는 세태일수록 만물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자스라 / 여름 난로爐 겨울 부채扇 역시 필요하매 사용되다 때 맞지 않아 밀려난 것이나니 / 같이 밥 먹는 입-일가, 가족, 식구 중 때를 만나지 못해 엎드려 기다리는 와룡臥龍과 안목없는 자 만나 빛 보지 못하는 나의 사랑 나의 웬수들에게 바친다 / 구겨지고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일래라’ – 조관제 화집 ‘하로동선(夏爐冬扇)’ 중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조관제(64) 화백의 세번째 개인전 〈하로동선〉 전은 가장 보편적이지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한 가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퇴근시간에 몽둥이를 들고 딸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빠의 모습이나 엄마의 잔소리가 가득한 말풍선, 구겨진 하트를 다림질하는 아내의 모습엔 가족의 일상이 담겨 있다.

40년간 끊임없이 도전해온 카툰계의 맏형

그는 “하로동선을 통해 가족뿐 아니라 때를 못 만나 날개를 펴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로동선은 ‘여름 난로와 겨울 부채’로 쓸모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로동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며, 언제든 다시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란 없습니다. 그에 맞는 기회와 시기를 제대로 못 만났을 뿐이지요. 이 전시회를 통해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며 언제든 다시 찾게 되는 가족, 그리고 기회와 시기를 못 만나 사회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하로동선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카툰작가 중 한 명인 조관제 화백은 1972년 월간 〈학원〉에 ‘아빠의 첫사랑’으로 데뷔한 후 그동안 부천만화정보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한국카툰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순(耳順)이 넘은 지금도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판타지

마음의 둥지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카툰작가로서 이번 전시회 역시 그에겐 모험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전시는 가족을 주제로 한 만큼 집 어딘가에 걸어 두고 편안하게 볼 만한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어요. 카툰이 지면뿐 아니라 전시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메시지가 강해지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카툰의 특징인 메시지를 최대한 절제했지요. 대신 회화처럼 배경을 살리는 작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 선배는 전시에 앞서 ‘보나마나 카툰과 회화 사이의 어중간한, 재미없는 카툰전시회가 될 것’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도 결국 카툰작가 후배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툰도 작품의 상업가치 인정받고 싶어”

그는 카툰작가로서 가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카툰작가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카툰이 작품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바람은 원화와 캔버스 패널 작품 총 70여 작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어떤 작품들은 회화에 가깝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다.

서재, 안방, 주방, 거실, 오피스 등으로 꾸며 각각의 공간에 맞는 작품을 걸어 놓은 것도 이번 전시의 특징 중 하나다. 〈하로동선〉전의 전시기획을 맡은 카툰피아 대표 조희윤(37)씨는 “이번 전시의 주제인 가족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면서 “궁극적으로 공간에 맞는 그림들을 배치함으로써 조 화백의 바람처럼 카툰도 집에 걸어 두고 감상할 만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이패드 이용한 라이브 퍼포먼스 ‘카툰콘서트’도

조 화백은 12월 17일에 이어 새해 1월 14일 다시 한번 ‘카툰콘서트’를 펼친다. 음악에 맞춰 아이패드로 즉석에서 카툰을 역동적으로 그려 내는 국내 최초의 라이브 카툰 퍼포먼스다. 조 화백을 비롯해 이대호, 김동범, 이영우, 손영목 등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카툰 작가들이 참여한다.

그간 수작업으로 작품 활동을 해 온 조 화백은 “후배들의 제안으로 의기투합해 카툰콘서트를 열게 됐는데 아직은 젊은 후배들처럼 능숙하지는 못하다”고 전하며 “그래도 SNS 등을 통해 이번 카툰콘서트가 알려진다면 전 세계 카툰 독자들을 끌어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카툰도 다른 예술작품처럼 도네이션하는 문화가 활성화돼 카툰작가들이 활발히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G

글·박근희 기자

일시 새해 1월 29일까지 **장소** 서울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문의 www.ani.seoul.kr ☎02-3455-8323 입장료 무료

기초과학관의 인기 전시물인 테슬라코일. 작동하면 강한 소음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상을 체험해볼 수 있다.

놀이·체험으로 배우는 '과학 꿈나무 동산'

국립과천과학관, 4천여 전시물 중 절반 이상 직접 작동하도록 꾸며 흥미 두배

국립과천과학관이 지난달 개관 3주년을 맞았다. 총 부지면적 24만3천9백70제곱미터에 17가지 테마로 구성된 과학관과 야외전시장 곳곳엔 과학지식이 속속 숨어 있다. 4천여 점의 전시물 중 절반 이상은 방문객이 직접 작동 및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에듀테인먼트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아갔다.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첫인상이다. 학창시절 달달 외우기만 했던 과학이론과 원리가 놀이와 체험을 만나는 순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던 과학원리들이 이곳에 오니 참 쉽게 이해가 되네요. 지긋지긋하기만 하던 원소주기율표도 이곳에서 보니 쉽게 외워지고 '압전소자'와 같은 전문용어도 체험으로 배우니 잊히지 않을 것 같고요. 과학관을 나갈 땐 아이도 저도 무척 똑똑해져 있을 것만 같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은 최혜정(40)씨는 가는 곳마다 탄성을 내뱉었다. "과학관도 잘 꾸며 놓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공식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기술 대중화의 중심기관을 목표로 설립됐다. 6백85개 주제로 된 전시물 4천여 점 중 절반 이상은 작동과 체험을 해 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상설전시관은 기초과학관, 첨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명예의전당, 전통과학관, 자연사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모형들을 실물 크기로 전시한 옥외전시관은 우주항공, 에너지, 교통수송, 역사의 광장, 지질동산, 공룡동산으로 꾸며져 있다.

최근엔 '행글라이더 및 항공관제시스템' '압전소자' '디지털방명록' '학익진 전법' 등 체험형 전시품 5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과학 관련 다양한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체험형 전시물과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시간 확인 후 스케줄을 미리 짜보고 방문하면 보다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기초과학관 "테슬라코일이 작동되는 순간 강한 소음과 스파크가 발생되오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코일을 작동하겠습니다. 3, 2, 1!"

안내원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스파크가 공중에 '찌릿' 하고 발생한다.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순간 일어난 현상에 대해 놀라운 표정이 역력하다. 기초과학관에서는 고전압 발생 장치 테슬라코일 작동 체험이 기다린다. 5분간 짧은 체험이지만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우비를 입고 진행하는 태풍체험이나 지진체험, 정전기체험, 플라즈마체험 등도 재미있다.

첨단기술관 오후 1시30분이 가까워 오자 관람객들이 우르르 첨단기술1관 로봇스타디움으로 몰린다. 매시 30분(낮 12시30분 제외)에 시작하는 로봇공연 시간이다. 신나는 음악이 흐르자 로봇댄서들이 엉덩이를 실룩대며 팔을 흔든다. 지휘자 로봇의 지휘에 맞춰 군무를 추는 로봇댄서들은 걸그룹, 아이돌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한다.

'사이버 아바타'는 영화 '아바타'의 촬영기법 중 하나였던 '모션캡처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체험자들은 가상세계 속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뇌파로 달리는 자동차(마인드레이싱카)'는 체험자의 뇌파 집중력을 이용해 자동차를 움직인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뇌파를 이용한 자동차 경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집중력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2층 첨단기술관 2관은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세상이다. 국제 우주정거장을 그대로 재현한 곳을 둘러보고 우주센터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항공기시뮬레이터는 항공조종사가 돼 보는 체험이다. 이륙, 비행, 착륙 단계를 모두 작동하며 체험해 볼 수 있다.

어린이탐구체험관 아이들은 물을 길어 올리느라 열심이다. 펌프질을 통해 물의 부력에 대해 알아보는 '물놀이' 코너의 풍경이다. 행성별로 몸무게를 알아보는 체험은 중력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영화 〈빅〉에서 톰행크스가 발로 밟으며 연주했던 바닥 피아노도 마련돼 있다. 큐씨앤씨 매직버스에선 4D 입체영화를 관람하며 인체탐험을 즐긴다. 큐씨앤씨 매직버스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입장 가능하다.

전통과학관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유물을 통한 전통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곳이다. 천체 및 해시계 관측체험과 측량법체험 등이 기다린다. 염색과 발효식품, 한옥 등에 숨은 생활과학 분야는 주부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다. 동서양 노젓기 체험은 상시 운영, 음성체질 진단·맥파분석·진맥 체험 등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접수로 가능하다.

자연사관 우주에 들어선 듯한 '탄생의 장'에선 지구의 탄생과 진화, 실물 운석 등을 보며 지구의 역사에 대해 배운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운전하며 한반도의 지질 명소를 여행한 후 안으로 들어서면 공룡 등 지질시대 화석이 펼쳐진다. 한반도의 생태계를 둘러보고 마치 우주인처럼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 여행 'S.O.S' 체험도 있다.

천체투영관&천체관측소 지름 25미터 돔스크린에 밤하늘이 펼쳐지는 곳이다. 계절별 별자리 관측과 지구, 달, 태양 등 우주여행이 기다린다. 만 5세 이상에 한하며 국립과천과학관 예약서비스를 통해 체험이 가능하다.

천체관측소에서는 대형 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천체를 관측해 볼 수 있다. 낮엔 태양관측 등이, 밤엔 천체관측과 오늘밤 별자리 알기 등이 진행된다. 초등학생 이상 예약을 통해 체험이 가능하다. G

글·박근희 기자

문의 국립과천과학관 scientorium.go.kr ☎02-3677-1500

대상 | 박현찬 〈조선소사람들〉

동상 | 고숙자 〈고려홍삼〉

금상 | 최인석 〈경복궁 단청의 고운 빛깔〉

은상 | 이희선 〈널뛰기〉

동상 | 박금옥 〈혼을 실어〉

‘더 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사진으로 본 한국·한국인 사진 공모전… 대상은 박현찬씨의 〈조선소 사람들〉

지난 11월 한 달간 ‘당신이 생각하는 더 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를 주제로 진행된 ‘제4회 사진으로 본 한국·한국인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공개됐다. ‘더 큰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사진으로 소통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천3백72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공모전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44점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한국의 산업 발전상과 모바일 세대의 결합을 담은 박현찬씨 작품 〈조선소 사람들〉에 돌아갔다.

출품된 작품에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현재를 사는 한국인들의 자화상,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가장 많이 응모된 작품은 우리나라 고유 전통과 문화, 문화재 등과 관련된 사진이었다. 새벽을 밝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작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등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은 작품도 다수를 이뤘다. 가족애를 반영한 작품이나 대한민국의 미소와 봉사를 강조한 사진도 많았다.

‘사진으로 본 한국·한국인 사진 공모전’은 1996~98년 실시됐던 정부 주관의 대표적 사진 공모전이었으나 IMF 경제 위기 등으로 중단됐다가 대한민국 사진포털 ‘공감포토’ 개설을 계기로 재추진된 것이다. 공감포토에서는 이번 수상작과 함께 각 정부 부처가 제공한 사진 및 역사 속 기록 사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공감포토 photo.korea.kr

〈황진이〉
'대쪽 기생'이 하인과 몰래한 사랑

조선중기 기생이었던 황진이는 그녀가 남긴 수준 높은 시와 독특한 삶으로 인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다. 지금까지도 소설, 뮤지컬, 노래, 영화 등 여러 장르에서 그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화 부문에서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황진이의 삶을 다룬 영화가 다섯 편 정도 만들어졌다.

일러스트 · 신용훈

2007년판 〈황진이〉(감독 장윤현)가 가장 최근에 황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다.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북한 소설가 홍석중의 〈황진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홍석중은 소설 〈임꺽정〉을 써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홍명희의 손자로 북한에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그의 소설 〈황진이〉가 만해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는 남한의 문학상을 탄 최초의 북한 소설가가 되었다.

2007년판 〈황진이〉는 기존에 각종 야담으로 전해져 오던 황진이의 삶에 '놈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더하여 그녀의 삶을 좀 더 입체화하려고 했다.

황진이 집의 하인이었다가 성장하여 화적패가 되는 놈이(유지태 분)와 황진이(송혜교 분)의 사랑을 부각시켜, 기생과 하인이라는 밑바닥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한 남녀의 슬픈 사랑을 표현했다.

실제 기생이었던 황진이의 삶에 하인인 놈이와 같은 존재가 한 명쯤 있었을지는 몰라도 전해 오는 이야기 속에서 황진이가 만났던 남자 중에 놈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 소설가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 작품이 원작

황진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송도(오늘날 개성)의 황진사 집의 딸로 태어나, 이웃의 도령이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상사병에 걸려 죽은 것을 안 뒤 충격을 받아 기생의 길로 나선다. 황진이는 황진사의 적녀라는 말도 있고 황진사와 첩 사이에 태어난 서녀라는 말도 있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기예로 드날린 기생 진현금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영화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내내 양반인 줄 알았던 황진이가 노비첩 소생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기생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

황진이는 공식적인 정사 기록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들은 〈송도기이(松都奇異)〉나 〈어우야담(於于野談)〉과 같은 야담으로 전해져 왔고, 시대를 거쳐 오면서 여러 이야기가 습합되고 변형되어 덧붙여졌다.

다만 황진이가 만났던 남자들 중 서경덕, 소세양 등은 조선중기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당시 그녀가 쓴 시들이 오늘날 남아 그녀의 실존을 증명하고 있다.

황진이는 기생이 된 뒤 명월이라는 기명을 쓰면서 명기로서 이름을 드날렸다. 기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미모와 춤, 노래, 가야금 등의 기예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름다운 사랑시를 짓고 더불어 학자, 선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교적 교양도 갖추어 당대에 많은 문사들과 교유했다고 한다.

2007년판 〈황진이〉는 가상 속의 인물 '놈이'를 등장시켜 기생과 하인이라는 밑바닥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한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많은 시를 썼다고 하지만 현전하는 것은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과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오른 시조 4수와 한시 2수뿐이다. 이 시들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것와 허위의식에 가득 찬 양반들을 조롱하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은 벽계수를 조롱하는 시조이다.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할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또 6년간 함께 산 선전관 이사종을 그리워하는 사랑시도 있다.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룬님 오신날 밤이어드란 구뷔구뷔 펴리라

황진이와 유명한 일화를 남긴 남자들 중에서 서경덕이나 이사종, 소세양 등은 그들의 학문적 성취나 관직 등으로 인해 어떤 인물인지 밝혀져 있지만 벽계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최근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벽계수는 고종 때 서우영이 쓴 〈금계필담〉에는 종실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세종 후궁소생의 아들인 영해군의 손자로 종친부의 정3품 관직인 도정직을 맡고 있었던 이종숙이라고 한다. 이종숙은 당시 벽계도정이라 불리고 황진이가 생존했던 시기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내서 그 접점이 꽤 많다.

황진이가 마음먹고 유혹하면 산중 고찰의 이름난 승려까지 다 넘어갔지만, 유일하게 황진이를 여자로 보지 않고 제자로 받아준 사람은 서경덕이었다.

서경덕은 뛰어난 학문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개성 화담 부근에 서재를 짓고 은거하여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는데 이로 인해 서경덕의 호가 화담이 되었다.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제자를 받아들여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들었고 황진이도 그중 한 명이었다. 영화에서도 서경덕은 황진이와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그녀를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로 대접하고 평생의 화두를 던져준다.

겨울 금강산에서 직접 찍은 멋진 풍경 화제

한편, 영화 〈황진이〉에는 황진이가 사랑했던 남자 놈이의 유골을 뿌리기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황진이는 정승의 아들 이생이라는 사람과 반년 동안 금강산을 여행한 적이 있다. 여행 기간에 황진이와 이생은 서로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동가식서가숙하면서 걸인처럼 금강산을 헤맸다고 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금강산 장면은 실제 금강산에서 촬영해 제작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다. 겨울 금강산을 배경으로 황진이가 놈이를 그리워하는 장면은 아름다운 여주인공의 미모와 멋진 풍경이 어우러져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당신 참 좋아 보이네요!〉
80대가 쓴 '늙음에 대하여'

루이스 월퍼트 지음
김민영 옮김
알키 펴냄 · 1만3천원

"'우리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을 읽는 짧은 순간에도 말이다."(15쪽)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책'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영국 런던대 생물학과 루이스 월퍼트 명예교수. 이미 80대이지만 스스로는 별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꾸 깜빡 하는 횟수가 늘자 혹시 '치매인가' 싶어 의사를 찾는다. 하지만 병원에 다녀와 생각하니 다른 이야기만 실컷 하고 정작 치매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됐다.

생물학자인 덕에 이 책은 노화에 따른 학문적 이야기가 많다. "최대 산소섭취량은 10년마다 10퍼센트씩 줄어든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천5백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6백만명이 사망한다" "30대부터 행복의 정도가 점차 낮아지다가 40대가 되면 최저점을 찍는다. 그러고는 서서히 올라가 80대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다" 등등이 그렇다. 그렇지만 노화(老化)와 웰에이징(well-aging)을 다룬 다른 책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은 저자 스스로가 노인이라는 점,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감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삶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기며 살 권리가 있다"

가령 저자와 친구들이 만나면 대화의 시작은 이렇다. "우리 위에서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아래부터 시작할까?" 그러면 친구들은 서로 자신의 아픈 부위를 열거하며 신세를 한탄한다. 그의 친구들의 스포츠는 단 한 가지, 바로 '안경 찾아 삼만리 게임'이다.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울하기만 한 풍경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면, 당신에게는 그 이후의 삶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책 마지막은 〈걸리버 여행기〉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3백 년 전에 썼다는 '내가 늙었을 때 명심해야 할 일'로 끝난다. 그것은 '젊은 여성과 결혼하지 말 것'으로 시작해 '나의 조언을 청하는 사람 외에는 청하지도 않은 조언은 삼갈 것, 많은 말을 삼갈 것, 특히 내 얘기를, 과거의 아름다움이나 건강을 자랑하지 말 것'으로 끝난다.

원제는 You're Looking Very Well. 저자 스스로 "고령자 입장에서 가장 듣기 좋은 칭찬"으로 꼽는 말이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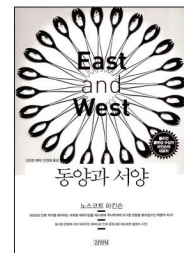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나도 오늘 출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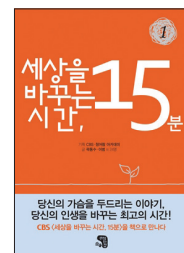
황윤의 지음 | 학지사 펴냄 | 1만2천원

장애 아이들의 좌충우돌 사회적응기를 담았다. 저자는 사회로 나간 아이들이 기특하게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한다. 시린 아픔을 사회통합으로 승화시킨 숭고한 자식 사랑,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배려와 나눔을 그려냈다. 장애 아동을 교육하면서 한계에 부딪혀야 했던 고뇌의 시간을 이겨냈던 극복담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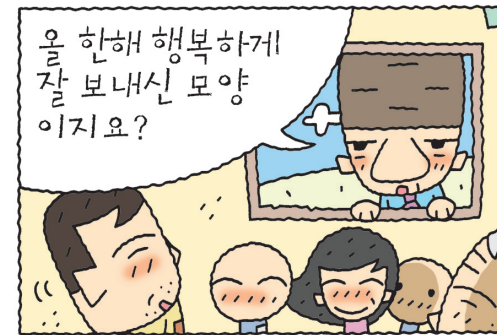
동양과 서양

노스코트 파킨스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8천원

경쟁과 투쟁을 통해 세계사의 패권을 주고받은 동양과 서양. 이 책은 고대 동양과 로마제국,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문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소개한다. 저자 파킨슨은 독창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세계사의 패권을 동서양이 교대로 주고받았다는 창의적인 역사관이다. 서양의 역학관계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날카로운 분석을 특유의 간결한 문체로 전개해 나간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곽동수 외 24명 지음 | 생각을담는집 펴냄 | 1만3천8백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자는 최소한 세상을 바꾸는 15분은 당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전직 우주비행사에서 대학생, 시인, 농부, 경영자 등 다양하다. 25명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마다의 방법을 소개한다. 이들의 15분 이야기는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하다. 독자들은 젊은이에게서 꿈과 상상력을 만나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빚 갚고 저축하며 산 한해

글과 그림 · 최영순

집에 방이 천 칸이라도 밤엔 여덟 자 방 한 칸에 눕고
좋은 밭이 만 이랑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두 되뿐이다. – 명심보감

사진이 못담은 식물세계 연필로… 붓으로 담았다

국립수목원

전시는 식물을 묘사한 그림과 함께 작가들의 감성과 생각을 표현한 글도 선보인다.

전시 **내 젊은 날의 숲-꽃 그림**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꽃그림 아티' 회원들이 모여 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열었다. 식물세밀화는 사진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물체의 부분이나 형태를 묘사해 미적 감각을 높인 예술작품이다. 희귀식물 대흥란, 자주꽃방망이 등을 포함해 강아지풀, 무궁화, 족도리풀 등 약 70점이 전시되어 있다.

일시 12월 30일까지 **장소**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 **문의** ☎031-540-1030

축제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자라섬에서 겨울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백미는 송어낚시다. 송어의 습성을 연구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얼음낚시터에선 관람객들이 골고루 송어를 잡을 수 있다. 가족, 연인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대규모 눈썰매장에서는 가족 썰매, 빙상 자전거, 아이스 범퍼카 등을 포함해 빙상 오토바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썰매를 타 볼 수 있다.

일시 2012년 1월 6~29일 **장소** 경기 가평군 가평천 일원 **문의** ☎031-580-2507

체험전 **뽀로로의 신기한 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맞춤형 어린이 체험전이 열린다. 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모래를 이용한 '모래사장'과 맛있는 브라우니를 만들 수 있는 '베이커리' 등을 포함해 '낚시놀이', '그림놀이' 등이 운영된다. G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2012년 2월 19일까지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문의** ☎1688-2633

공연	장소	날짜	문의
연극			
꽃	문화공간 아리	12월 31일까지	070-8744-9199
벙커맨	서울 문예대 대학로극장	2012년 1월 18일까지	070-8621-0034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광주유스퀘어 동산아트홀	12월 31일까지	1544-1555
엄마와 크리스마스	환희 소극장	2012년 1월 31일까지	02-743-1974
메모리	컬투홀	12월 31일까지	02-737-0838
버자이너 모놀로그	충무아트홀	2012년 1월 29일까지	1666-8662
밀당의 탄생	PMC대학로자유극장	2012년 1월 29일까지	1544-1555
아마데우스	명동예술극장	2012년 1월 1일까지	1544-1555
콘서트			
인피니트 콘서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	2012년 2월 11~12일	1544-1555
임재범 콘서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2월 30~31일	1544-1555
김경호 콘서트	부천실내체육관	12월 31일	1599-0701
노을 콘서트	부산시민회관	12월 31일	1566-5490
남진 디너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12월 30~31일	1544-1555
클래식/오페라			
제야음악회 -Propose 2012	세종문화회관	12월 31일	1544-1555
국립오페라단 2011 오페라 갈라 콘서트	예술의전당	12월 29~31일	02-586-5284
2011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예술의전당	12월 31일	02-580-1300
대구오페라하우스 2011 제야음악회	대구 오페라하우스	12월 31일	1544-1555
무용			
4색여정 -Endless Voyage	예술의전당	2012년 1월 4~5일	1544-1555
호두까기 인형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2월 30~31일	1544-1555

12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2월 11일~12월 17일)

곡명	가수
1 너랑 나	아이유
2 Trouble Maker	현아, 현승
3 그 노래를 틀때마다	허각, LE
4 촌스럽게 굴지마 (Feat. 용준형)	알리
5 살기 위해서	노을
6 미행	먼데이키즈
7 Cry Cry	티아라
8 Be My Baby	원더걸스
9 겨울밤	장재인
10 비밀	아이유

같은 말, 다른 뜻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나눔은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사장님의 '돈 봉투'

이달 초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하얀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다. 봉투 속에는 5만원권 지폐 한 장과 사장님이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겨울이 깊어 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겨울을 남모를 고통 속에서 매우 힘들고 답답하게 보내야 하는 분들도 많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봉투에 든 '돈 모양의 마음'이 따뜻하고 살갑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놓고 나니 액수가 좀 적습니다만, 이 돈은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러니 이 어렵게 번 돈을 좋은 일에 보다 값지게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베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금이나 선물을 전할 때 정성을 담은 메시지도 적어서 함께 드리라고 예쁜 카드도 한 장 넣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열어 본 회사 직원들은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봤지만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다. 게다가 '이 봉투가 가장 가치 있게 쓰일 곳'을 찾아보라는 구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난 여름 폭우로 가족과 집을 잃은 분들, 무심하게 봐 넘긴 소년소녀 가장, 날씨가 추워져도 찾아올 이 없이 쪽방을 지키며 사는 홀로 사는 노인…. 이렇듯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좀 부끄럽다.

막상 성의 있게 남을 도우려니 막막

고백건대, 나는 얼음장 같은 지하도 계단에 웅크리고 있는 장애인에게 동전 한 닢 보탠 적이 없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스 안에서 누가 껌 한 통 팔아 달라고 내 무릎 위에 놓았을 때 그 껌값 1천원을 편한 얼굴로 내밀지 못한 것도, 길거리 빨간 자선냄비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도 모두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렇듯 내 마음에 행동이 따라 주지 못한 것은 '남을 도와주는 연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와 회사 동료들은 "우리 사장님은 연말에라도 이런 '연습'을 '가볍게' 한 번씩 실천해 보자는 뜻을 이 봉투에 담아 나눠주신 것 같다"고 받아들였다.

우리 회사는 연말연시에 신문이나 방송에 회사 이름을 내면서 기탁하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이웃에 대해 무심한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직원들을 통해 회사 형편에 맞춰 가며 습자지에 먹물 번지듯 잔잔하고 따뜻하게 '이웃사랑 실천'을 해 보자는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받은 '봉투'를 가장 보람 있게 쓰려고 이리저리 고민해 봤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길거리 자선냄비에 그냥 넣어 버리기엔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돈을 값지게 사용할 일이 생겼다. 어제 저녁 퇴근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주차관리하시는 할아버지가 이 혹한에 좀 부실해 보이는 점퍼를 입고 떨면서 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돈을 좀 보태더라도 두꺼운 점퍼를 한 벌 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퍼를 곱게 포장해서 직접 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옷과 함께 카드에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서 주차관리실에 몰래 갖다 놓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평소 안 하던 일을 하려니 괜히 어색하고 조심스럽다. 이래서 좋은 일도 평소에 연습이 필요한 모양이다.

회사 동료들은 '봉투'와 관련해서는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저마다 알차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 '봉투' 하나를 끌어안고 흐뭇한 상상을 하며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나는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번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상상에 내 마음이 먼저 푸근해진다. 글·이현경 (회사원)

일러스트 · 이철원